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제82호 【루계 제24495호】 주체103(2014)년 3월 23일 (일요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3월 22일 4.25문화회관에서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최룡해동지, 장정남동지, 변인선동지, 서홍찬동지, 김수길동지, 김영철동지, 조경철동지, 리병철동지, 김기남동지, 박도춘동지, 김평해동지, 한광상동지, 김경옥동지, 리재일동지, 김병호동지, 김여정동지와 인민군장병들이 공연을 보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게 된 무한한 행복으로 하여 인민군장병들의 가슴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공연무대에는 녀성중창 《인민의 환희》, 녀성독창과 방창 《뜨거운 정》, 녀성2중창과 방창 《우리 어버이》, 녀성독창과 방창 《바다 만풍가》, 녀성3중창 《귀항의 노래》, 녀성독창과 방창 《자나깨나 원수님 생각》, 《날아가다오 그리운 내 마음아》, 녀성독창 《희망넘친 나의 조국아》, 녀성2중창과 방창 《우리 원수님》, 경음악 《병사의 발자욱》, 녀성독창과 방창 《용사들》, 녀성중창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 녀성4중창 《그이 없인 못살아》, 녀성중창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의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무비의 담력과 강철의 의지로 반미대결전을 승리에로 령도하시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는 선군조선의 위대한 힘이시고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출연자들은 또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만을 받드는 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이 있고 그이의 두리에 뜻과 정, 그리움으로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혼연일체의 위력이 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막을자 세상에 없다는것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여 고난도 시련도 두렵지 않으며 그이의 힘찬 발걸음만 따르면 험산준령도 웃으며 헤쳐 넘을수 있고 그 어떤 강적도 단숨에 짓뭉개버릴수 있다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으로 하여 장내는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였다.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련방 따따르스딴공화국 대통령이 선물을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련방 따따르스딴공화국 대통령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루스땀 민니하노브대통령이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와 지역기구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7일부터 21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기구에서 보도하였다.

중국보도사는 김정숙해군대학과 김책항공군대학 교직원들의 사격경기를 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사격경기를 자주 조직하는 목적은 사격훈련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백발백중의 명사수들로 준비시키는데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정숙해군대학과 김책항공군대학 교직원들의 사격경기성적이 얼마전에 진행한 군사학교 교직원들의 사격경기성적에 비해 높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인민군대에서 조선로동당의 의도대로 사격훈련의 된바람을 일으키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사격경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 인터네트홈페지들인 신화망, 인민망, 환구망, 방송망, 경제망, 광명망, 중국망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보도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태호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먼저 전자도서관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여러 과학연구기관들은 물론 이름있는 대학들과 망체계를 형성함으로써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주고 시야를 넓혀줄수 있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이어 설계연구실, 가공 및 조립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의 정밀화, 경량화, 지능화정형을 료해하시고 모든 제품들을 사용자들속에서 호평을 받을수 있게 최상의 수준에서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이 조선의 기계제작공업을 세계적수준에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를 안고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생산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 인터네트홈페지들인 청년망, 광명망, 참고소식망, 일본의 교도통신도 우와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의 홍콩 《대공보》, 로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그루빠, 반 《세계화》운동 인터네트홈페지들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된데 대하여 전하였다.

중국의 《참고소식》, 홍콩 《대공보》, 인터네트홈페지들인 인민망, 동북망, 로씨야의 인터네트잡지 《한베르 져널》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88군부대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신 소식을, 중국의 홍콩 《대공보》, 인터네트홈페지들인 인민망, 환구망, 중국망은 군종,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의 사격경기를 지도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로씨야 반 《세계화》운동,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 인터네트홈페지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군사학교 교직원들의 사격경기를 지도하신 소식을 올렸으며 네팔신문 《아르판》은 김일성정치대학을 방문하시고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신데 대하여, 로씨야신문 《쁘라우다 쁘리모리야》는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2620군부대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신데 대하여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로씨야련방 따따르스딴공화국 대통령일행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22일 루스땀 민니하노브 로씨야련방 따따르스딴공화국 대통령과 일행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조로친선관계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 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대통령은 방문록에 탁월한 국가활동가들이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주석이신 김일성동지께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께 경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로조 두 나라 친선협조관계발전의 공고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잊지 않고있다고 썼다.

【조선중앙통신】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평양에서 진행된다

인류공동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진행된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인류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는 국제적인 대예술회합이다.

이번 축전에서는 사회주의조선의 강성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였으며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의 노래가 높이 울려퍼지게 될것이다.

축전에는 세계 수십개 나라의 이름있는 국제국내콩클 수상자들, 관록있는 명배우들로 구성된 예술단, 무용단, 교예단 그리고 해외동포예술단들과 우리 나라 예술인들이 참가하게 된다.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수억만 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을 안고 참가자들은 성악, 기악, 무용, 교예 등의 다채롭고 특색있는 종목들로 인류공동의 명절을 뜻깊게 장식할것이다.

자주, 평화, 친선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이게 될 축전은 여러 나라 예술인들사이의 문화적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는 의의깊은 계기로 된다.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천만군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할것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로씨야련방 따따르스딴공화국 대통령일행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2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온 루스땀 민니하노브 로씨야련방 따따르스딴공화국 대통령과 일행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궁석웅 외무성 부상, 관계부문 일군들과 알렉싼드르 찌모닌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이슬라마바드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대통령

맘눈 후쎄인각하

나는 귀국인민의 뜻깊은 민족적명절인 파키스탄의 날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면서 전통적인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계속 좋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3(2014)년 3월 22일 평 양

로작학습을 실천과 결부하여

신천군 우룡리당위원회에서

신천군 우룡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학습을 실천과 결부하여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강성국가건설의 지름길을 환히 밝혀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들에 대한 학습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데 기초하여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이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이와 함께 일군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을 누구보다 먼저 깊이 학습하고 그 사상을 대중속에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잘하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들끓는 포전에서 한 일군은 작업의 쉴참을 리용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에 대한 해설사업을 진행하였다.

서한에 담겨진 사상을 알려주면서 그는 사회주의농촌테제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여 새 세기 농촌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고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난 농장원들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오늘의 장엄한 투쟁에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 불같은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로작학습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해나가고있는 이곳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올해에 맡겨진 알곡생산계획을 기어이 넘쳐 수행할 드높은 열의를 안고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리정수

로씨야련방 따따르스딴공화국 대통령일행 귀국

【평양 3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루스땀 민니하노브 로씨야련방 따따르스딴공화국 대통령과 일행이 22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궁석웅 외무성 부상, 관계부문 일군들과 알렉싼드르 찌모닌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전송하였다.

력사의 새벽길과 더불어 빛나는 지원의 사상

조선국민회결성기념일을 맞으며

오늘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신 때로부터 97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이 력사의 날을 맞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원의 사상을 내놓으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조선국민회는 전체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울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로서 3.1인민봉기를 전후한 시기 조선의 애국자들이 무은 국내외의 조직들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큰 반일지하혁명조직의 하나였다.》

혁명은 대를 이어 계속하여야 할 력사적위업이다. 혁명은 결코 한세대에 끝나지 않는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 계속되는 투쟁의 길에서 자그마한 변색과 탈선을 모르고 승승장구해나가는 혁명에는 근본뿌리가 있다.

우리 혁명에 있어서 바로 그것은 김형직선생님께서 지니시였던 지원의 사상이다.

지원의 사상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참된 보람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인생관이며 대를 이어가며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해방을 이룩해야 한다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다.

몸이 찢겨 가루가 될지언정 후대들에게 독립된 조선, 문명국가의 새봄을 안겨주시려는 비장한 각오와 불굴의 투지를 안으시고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기 위해 헤치신 새벽길, 험난한 총칼의 숲은 그 얼마였던가.

돌이켜보면 지난 1910년대 후반기는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의 식민지통치가 본격화되던 시기였다. 세계적으로는 아직 식민지민족해방투쟁문제가 성숙되지 않고있었으며 독립운동의 방식과 방법도 개척되지 못하고있던 암담한 시기였다.

바로 그러한 때 식민지노예의 운명에 항거하여 일떠선 우리 인민의 반일독립운동이 일제의 야만적인 탄압에 의해 걸음마다 실패와 우여곡절만을 겪고있는 현실을 누구보다 가슴아프게 감수하시고 독립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신분은 김형직선생님이시였다.

지금도 《지원》의 글발을 바라보느라면 험난한 력사의 새벽길을 헤쳐가시던 그이의 모습이 숭엄히 어려온다.

력사의 그 나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라를 독립시키지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내 몸이 찢기여 가루가 될지언정 일본놈들과 싸워이겨야 하겠습니다. 내가 싸우다 쓰러지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싸우다 못하면 손자가 싸워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나라의 독립을 성취하여야 합니다. …

이 말씀은 곧 그이께서 품고계시던 지원의 사상과 신념, 조국해방에 대한 사상과 지향이였다.

이렇듯 지원의 숭고한 뜻을 품으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봉화리를 혁명활동의 거점으로 하여 국내의 수많은 곳들에 조직을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다.

동지들을 찾아 핵심으로 육성하고 군중적지반을 축성하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마침내 주체6(1917)년 3월 23일 평양 학당골에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결성하신 조선국민회는 전체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로서 당시 조선의 애국자들이 무은 국내외의 조직들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큰 반일지하혁명조직의 하나였다.

바로 여기에 조선국민회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에서 차지하는 중추적역할과 주도적지위가 있다.

조선국민회의 취지서에는 장차 유미세력이 동양에 부식되고 일본이 그들과 패권을 다투게 될 시기가 닥쳐올것이 명백하므로 그 기회에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조선독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지들의 결속을 도모하며 그 준비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밝히였다.

취지서를 통해서도 알수 있는바와 같이 조선국민회의 결성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성취하시려는 김형직선생님의 견결한 반제자주사상과 그 실현을 위한 간고한 투쟁의 결실이였으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

조선국민회가 결성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마침내 모든 반일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워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운동을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위력한 지도적혁명조직을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은 민족자체의 조직화된 힘에 의하여 확신성있게 전진하는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신 후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지원의 사상을 꽃피우시기 위하여 험난한 투쟁의 새벽길을 앞장서 걸으시였다.

그 길은 한몸을 서슴없이 바쳐야 하는 참으로 간고한 시련의 길이였다. 그러나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자신은 비록 락을 보지 못하더라도 오로지 조선의 독립과 겨레의 해방을 위하여 력사의 한복판에 거연히 서시여 모진 광풍을 맞받아 투쟁의 길을 쉬임없이 걷고걸으시였다.

조선국민회가 결성된 때로부터 어언 근 한세기가 흘렀다. 그 나날은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따라 김형직선생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온 영광스러운 계승의 력사로 빛나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지원의 사상을 계승발전시켜 우리 혁명의 새로운 길, 주체의 길을 개척하시였고 선군혁명의 위대한 력사를 창조하시였다. 그 길에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이 성취되였고 민족의 자주권이 만천하에 떨쳐졌으며 부강한 인민의 락원, 사회주의 새 세상이 펼쳐지게 되였다.

지원의 사상으로 시작되고 대를 이어 순결하게 이어져온 승리의 력사는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더욱 줄기차게 이어질수 있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은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우리는 혁명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지원의 뜻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계승완성해나가리!

이런 불굴의 신념, 드팀없는 의지를 안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기에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선군의 길을 앞장에서 과감히 헤치시며 이 땅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대통로를 활짝 열어주시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력사의 새벽길을 헤치시며 높이 추켜드시였던 지원의 뜻어린 반제자주, 민족단결의 숭고한 리념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천만군민의 총진군길우에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계속 혁명의 위대한 리념을 끝까지 고수할것이며 이 땅에는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인민들이 남부럽지 않게 잘사는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가 반드시 일떠서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정순학

최룡해총정치국장

위성과학자거리건설정형 현지료해

【평양 3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위성과학자거리건설정형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사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은정과학지구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친히 《위성과학자거리》로 명명해주신 현대적인 과학자거리가 건설되고있다.

총정치국장은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 관철을 위한 공사진행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성과를 적극 고무해주었다.

인민군대가 최고사령관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마식령속도》를 창조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건설을 최단기간내에 끝낼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과학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건설물의 질보장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려 위성과학자거리를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일떠세우며 련관단위들에서 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원만히 보장해줄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김 정 은

논벼의 씨뿌리기적기설정에서 나서는 문제

농업성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매 영농공정별로 준비를 면밀히 한데 기초하여 시기별영농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을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봄철영농전투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도, 시, 군농업지도기관들과 협동농장일군들앞에는 당면한 논벼씨뿌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한해농사의 첫 공정인 씨뿌리기에서 시기성과 질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모내기를 비롯한 중요영농공정들을 적기에 끝낼수 있다.

우리는 얼마전 논벼의 씨뿌리기적기를 과학적으로 설정하는데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를 놓고 농업성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논벼의 씨뿌리기적기는 어떤 원리에 기초하여 설정하는가.

부국장 김창길: 씨뿌리기적기는 한마디로 해당 생산단위의 기후 및 토양조건과 재배기술조건, 영농물자보장조건에서 정보당 수확고를 가장 높일수 있는 씨뿌림시기이다.

지역별기상조건에 따라 논벼의 수확고를 최대로 높일수 있는 이삭패기적기가 있다. 씨뿌리기적기는 이삭패기적기를 보장할수 있도록 품종특성과 재배기술, 영농조건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서해벌방지대들과 동해안의 함흥이남지역들에서 논벼의 이삭패기적기는 대체로 8월 15일을 전후한 8월 10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이다. 따라서 지역별기후 및 토양조건과 품종의 생물학적특성, 모종류, 재배방법, 영농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씨뿌리기적기를 과학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기자: 그러면 씨뿌리기적기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가.

부국장 한창호: 우선 해당 지역의 평년기상조건 또는 예견되는 기상조건에서 논벼품종들의 이삭패기적기를 정하여야 한다. 그러되 지역별로 해발높이와 바다가로부터의 거리, 구체적인 포전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삭패기적기는 해당 시, 군들에서 농사시험자료와 예상수확고판정자료를 분석하여 소출이 최대로 높은 시기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정해야 한다.

책임부원 전경수: 다음으로 품종별생물학적특성(주로 올늦성, 모판시기 온도반응특성)과 재배방법, 지력, 비료시비량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모종류별로 씨뿌리기적기를 정하는것이 좋다.

논벼는 모내는 시기가 같다 하더라도 모내기당시의 잎수와 평당 포기수, 지력과 비료시비량에 따라서 이삭패는 시기가 달라진다. 5잎나이속성모를 기준으로 할 때 6잎나이랭상모의 모내기적기는 5~6일 늦어지며 4잎나이영양랭상모는 3~4일정도 앞당겨진다. 그리고 평당 포기수가 줄어들거나 지력과 비료시비수준이 높아지는데 따라 이삭패는 시기가 늦어지므로 그만큼 모내기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실례로 평당 120포기의 모를 낼 때에 비하여 80포기의 모를 낼 때 이삭패는 시기는 3~4일 늦어진다.

따라서 품종별로 이삭패는 시기를 예측하고 그 시기가 지역의 이삭패기적기에 놓이도록 지력과 비료시비량에 따르는 모종류별모내기적기를 규정한 다음 이를 보장할수 있게 씨뿌리는 시기를 설정해야 한다.

기자: 해당 지역의 기상조건을 고려하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책임부원 안춘갑: 옳은 말이다. 해당 지역에서 씨뿌리기에 적합한 온도가 보장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모내기잎나이를 보장하면서도 싹나온률을 최대한 높이는 원칙에서 씨뿌리기시작시기를 정해야 한다.

박막을 씌우는 경우 일평균기온이 발랭상모의 경우에는 5℃, 발상태논랭상모의 경우에는 7℃로 안전하게 보장되는 시기에 씨뿌리기를 시작할수 있다.

박막을 씌우지 않는 모기르기에서는 일평균기온이 12℃정도 되는 때가 씨뿌리기시작시기이다. 랭상모씨뿌리기를 너무 일찍 하면 싹나오는 기간이 길어져 싹나온률과 모선률이 떨어진다. 시험자료에 의하면 랭상모씨뿌리기를 3월 15일~20일에 한 모판에서는 싹나오는 기간이 10~12일이나 걸렸다. 그런데 3월 20일경에 씨뿌린 모판은 열흘후인 4월 1일경에 씨뿌린 모판에 비하여 모내기당시 잎수는 거의 차이나지 않는 반면에 싹나온률은 9.2%나 떨어졌다.

따라서 씨뿌리기에 적합한 온도가 보장되는 시기에만 맞추지 말고 모종류별로 모내기잎나이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씨뿌리기시작시기를 정하는것이 좋다.

책임부원 전경수: 씨뿌리기적기를 과학적으로 설정하자면 토양조건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해농사에서 중요한 영농공정인 모내기는 하루이틀에 다 끝내지 못한다. 따라서 품종별, 모종류별, 재배방법별면적과 단계별모내기면적에 맞는 씨뿌리기면적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랭습지, 초기생육이 나쁜 논, 병해충이 발생할수 있는 포전에서는 모내는 시기를 늦추고 모살이를 앞당길수 있는 단지모, 영양알모, 큰모와 같은 모종류를 도입하며 그에 맞게 씨뿌리는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기자: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이것을 잘 알고 씨뿌리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할 때 정보당 수확고가 높아져 나라쌀독이 가득 채워질것이라고 생각한다.

부국장 김창길: 우리는 시기성과 질을 다같이 보장하는 원칙에서 씨뿌리기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어 모내기를 비롯한 중요영농공정들을 적기에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올해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겠다.

본사기자 황연옥

린회토유기광물질비료를 모판재료로

송화군에서

씨뿌리기준비가 마지막단계에서 진행되고있는 송화군안의 협동농장들에 가면 벼랭상모판재료로는 린회토유기광물질비료가 좋다는 말을 듣게 된다. 근거가 있는 말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리용하여야 합니다.》

군안의 농장들에서는 몇해전부터 벼랭상모판에 린회토유기광물질비료를 밑비료로 내고 벼모를 키웠다. 그런데 온천협동농장의 벼모는 다른 농장들것보다 실하였다. 벼모를 잘 키워낸것만큼 논벼 정보당 수확고가 높았다.

이 사실을 놓고 다른 농장일군들은 그 지역의 린회토는 질이 좋기때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은 문제를 그렇게만 보지 않았다. 이 농장에 내려간 그는 벼랭상모판들을 돌아보면서 작업반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과정에 그는 한가지 사실에 흥미를 가지였다.

농장의 모든 작업반들에서 이 비료를 벼랭상모판밑비료로는 물론 복토재료로도 리용한것이였다.

그러면 이 농장에서는 이 비료를 어떻게 벼랭상모판복토재료로 리용하였는가.

농장의 작업반들에서는 해비침률이 높고 찬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는 곳에 린회토유기광물질비료를 5~10t씩 생산할수 있도록 땅을 어지간히 깊이 팠다. 그리고 린회토와 북데기, 진거름을 골고루 섞어 그곳에 넣은 다음 비닐박막을 씌웠다. 그때로부터 3~4일 지나면 온도가 오르면서 숙성되기 시작하였다. 농장원들은 온도조건을 보아가면서 7~10일후 비닐박막을 벗기고 그것을 다시 골고루 뒤져놓았다. 이렇게 하니 대체로 20~30일이면 질좋은 린회토유기광물질비료가 되였는데 날씨가 더워질수록 생산기일이 짧아졌다.

작업반들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생산한 이 비료를 채로 쳐서 거친것은 포전에 실어내였다. 그리고 보드라운것은 벼랭상모판밑비료로도 쓰고 일정한 량은 흙과 골고루 섞어서 복토재료로 리용하였다.

이 비료를 밑비료와 복토재료로 리용하였을 때 종전보다 벼모의 생육상태가 훨씬 좋아지고 정보당 수확고도 높아졌다.

모든 사연을 알게 된 경영위원회일군은 이 비료를 벼랭상모판밑비료와 복토재료로 리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농장들에 내려간 군일군들은 벼랭상모판재료준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대중을 이 비료생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관양, 룡호협동농장들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에서 이 비료생산을 늘이기 위한 된바람이 불었다.

이때 일군들이 잘한것은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린회토유기광물질비료의 질을 높이도록 한것이다. 일군들은 생산된 이 비료를 채로 쳐서 거친것과 보드라운것을 갈라놓게 하였다. 이와 함께 비료성분이 류실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들을 세웠다. 농장들에서는 생산된 이 비료를 보드라운 흙과 골고루 섞어 복토재료로 쌓아놓았다.

결과 농장들에서는 많은 린회토유기광물질비료를 생산하여 뜻깊은 올해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할수 있는 전망을 마련하였다.

본사기자 김창길

영양랭상모를 받아들일 목표밑에

대동군 읍협동농장에서

대동군 읍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영양랭상모를 키워 모내기를 할 목표를 세우고 그 준비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에서 증산의 중요한 예비는 현대농업발전추세에 맞게 영농방법을 혁신하는데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몇년전부터 영양랭상모에 의한 논벼재배방법을 받아들여 크게 덕을 보았다. 많은 로력을 절약하고 벼랭상모판자재를 종전보다 절반이상 절약하면서도 소출이 높은 이 재배방법은 농장원들속에서 호평이 대단했다. 그런것으로 하여 영양랭상모도입면적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는 다락논을 제외한 모든 포전들에 받아들이였다.

(랭해가 심하고 지력이 낮은 다락논에까지 이 방법을 받아들인다면 수확고는 더욱 높아지지 않겠는가.)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관리위원장 김봉실동무는 이 문제를 놓고 생각을 깊이하였다. 그는 기사장 김영락동무를 만나 자기의 속생각을 터놓았다. 마침 다락논에 영양랭상모를 받아들이기 위한 문제로 고심하던 그는 관리위원장과 함께 다락논들을 돌아보며 그 방도를 찾아나갔다.

이 과정에 그들은 논두렁밑에 찬물받이도랑을 째놓으면 랭해를 막을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랭해를 막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였다. 바쁜 시기에 연 수십리에 달하는 찬물받이도랑을 파내야 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농장원들은 작업반별, 분조별사회주의경쟁을 벌리면서 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갔다.

일군들은 여기에 맞게 소출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방도를 찾고 적극 내밀었다. 영양랭상모는 다른 모보다 어린 시기에 내는것만큼 모를 잘 기르는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일군들은 씨뿌리기준비에 특별히 관심을 돌리였다. 우선 씨뿌리기날자를 바로 정하고 모판만들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착실히 해나갔다. 영양랭상모는 모판흙의 산도를 정확히 보장 못하는 경우 모마름병에 걸릴수 있으므로 산도조절을 잘해야 한다. 일군들은 토양조건이 좋고 물보장이 유리한 곳에 모판적지를 정해놓았다. 그리고 산도측정을 먼저 한데 기초하여 토양의 산도보장을 기술적요구대로 한 다음 모판을 만들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 모판재료도 산도보장에 적합하게 배합하여 리용하도록 하였다.

농장에서는 또한 모를 실하게 자래울수 있도록 벼모판종합영양제를 확보해놓았으며 거름과 흙보산비료, 생물활성퇴비도 넉넉히 생산하여 지력을 더욱 높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놓았다.

본사기자

톱밥으로 흙보산비료를 생산

안주시 덕성협동농장에서

안주시 덕성협동농장은 시적으로 흙보산비료생산을 잘하기로 소문났다.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최근 몇해동안 톱밥으로 흙보산비료를 생산하여 그 덕을 보고있다. 올해에도 흙보산비료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떨쳐나선 이들은 이미 원료확보를 끝내고 생산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유기농법에서 기본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리용하는것입니다.》

흙보산비료생산에서 중요한것은 원료보장이다. 사실 농장주변에는 흙보산비료생산에 필요한 니탄을 비롯한 원료원천이 부족하였다.

하지만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모래기가 많은 척박한 땅을 기름진 땅으로 만들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흙보산비료생산을 위해 원료원천탐구에 힘을 넣었다.

그 과정에 어느 한 공장에 산더미처럼 쌓인 톱밥을 원료로 리용하면 얼마든지 흙보산비료를 생산할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후 농장에서는 톱밥을 실어들여 흙보산비료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 농장에서 톱밥으로 흙보산비료를 생산하는것을 보면 주목되는것이 있다.

톱밥은 풀이나 곡식짚보다 썩는 기일이 오래 걸린다. 때문에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톱밥을 잘 썩이는데 품을 들이였다.

우선 운반해온 톱밥을 두해동안 묵여 푹 썩인 후 여기에 진거름을 골고루 섞게 하였다.

이렇게 생산한 기질 1t에 암모니아수 20~30kg, 소석회 100~150kg을 골고루 넣어 혼합하였다. 혼합방법은 기질을 20㎝의 두께로 펴고 암모니아수를 분무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다음 높이가 1.5~2m 되게 더미를 만들고 그우에 박막을 씌워 더미의 온도가 30℃까지 오르게 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봄과 가을에 많은 흙보산비료를 야외에서 생산하였다.

겨울에는 작업반마다 꾸려놓은 온실에서 흙보산비료를 생산하였다.

농장에서는 작업반들에서 이렇게 생산한 흙보산비료를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였다.

씨뿌리기를 할 때에 밑비료로 흙보산비료를 일정한 량 뿌리고 그우에 흙을 얇게 덮어주었다. 봄철기온이 내려갈 때에는 물에 푼 구들재와 함께 흙보산비료를 뿌려주었다.

이렇게 하니 온도가 더 올라 모를 튼튼하게 키울수 있었다.

논을 간 후 흙보산비료를 밑비료로 뿌리고 모내기가 끝난 다음에도 포기사이에 적당한 깊이로 묻어주었다.

이삭이 패기 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 더 심층시비하였다.

기사장 박용식동무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흙보산비료를 적당한 깊이로 묻어주었을 때 그 효과성이 더욱 높아져 수확고는 그전보다 10%나 더 올라갔다고 한다.

톱밥으로 흙보산비료를 생산하여 리용하면 여러모로 좋은 점이 있다고 한다.

우선 원료걱정이 없어 좋았다. 또한 톱밥에는 곡식이 자라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어 흙보산비료의 질을 보장할수 있었다. 또한 톱밥을 실어들이면 풀이나 곡식짚을 걷어들이는것보다 품이 적게 들어 좋았다.

그리고 토양의 물리적성질을 좋게 하고 비료의 효과성을 높이므로 알곡 정보당 생산량을 늘일수 있었다.

최근년간 그 덕을 톡톡히 본 농장일군들은 올해에 지난해보다 더 많은 흙보산비료를 생산할 목표를 세웠다. 농장에서는 이미 원료를 전부 확보해놓은데 맞게 흙보산비료를 과학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정성일

벼모판종합영양제생산을 다그친다.
—보통강유기질복합비료공장에서—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심금을 울려주는 화선식정치사업

덕산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

요즘 덕산탄광에서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그 중요한 비결의 하나는 탄광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이 들끓는 전투현장에 들어가 탄부들의 심금을 울려주는 화선식정치사업을 박력있게 벌리고있는데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야 하겠습니다.》

지난 2월말이였다.

올해에 들어와 기세좋게 전진하던 탄광의 석탄생산실적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어느날 탄광참모회의에 참가했던 초급당비서 표진성동무는 생각이 깊었다. 회의에 참가한 대다수의 일군들이 우에서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어주기 전에는 생산실적을 더 높일수 없다는것이였다. 이러한 견해는 갱단위의 일부 분초급당일군들과 초급일군들속에서도 나타나고있었다.

(방도는 무엇인가.)

초급당비서는 그 방도를 오늘의 사상공세는 일군들의 패배주의를 불사르는것으로부터 시작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의 구절에서 찾았다.

—우리 일군들부터가 패배주의를 불사르고 탄부들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드세게 벌려 오늘의 난관을 타개해나가자.

이렇게 결심을 굳힌 초급당일군은 즉시 탄광일군들의 모임을 조직하였다. 모임에서 그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해설해주면서 초급당과 분초급당안의 모든 일군들이 탄부들속에 들어가 석탄생산을 늘일수 있는 방도를 찾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는 탄광에서 제일 거리가 먼 로천갱으로 나갔다. 현장에서 로동자, 기술자들의 협의회를 조직한 초급당일군은 탄광앞에 제기된 문제들을 알려주면서 방도를 토의하였다.

이 과정에 수평갱도들에 로력과 자재를 집중시키면 얼마든지 전기를 적게 쓰면서도 석탄생산실적을 높일수 있다는 현실적인 안이 제기되였다. 다른 갱들을 맡고나갔던 일군들속에서도 여러가지 방도들이 나왔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탄광참모부에서는 지체없이 수평갱도를 많이 가지고있는 로천갱지구에 로력과 자재를 집중시켰다. 한편 소갱들에도 힘을 넣어 한의 석탄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한 전투조직을 짜고들었다.

일군들이 앞장에서 달리고 분발해나서니 막혔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여기에만 그치지 않았다.

어느날 내동갱에 나갔던 초급당일군은 갱막장에서 화선식정치사업을 더욱 기백있게 하자면 기동적이면서도 간편한 선동기재가 필요하다는것을 포착하게 되였다.

그날 밤 그는 수십리 밤길을 달려 20여개의 선동기재를 구해왔다. 그리고 작업의 쉴참을 리용하여 탄부들에게 당정책도 해설해주고 노래도 불러주며 그들을 혁신에로 고무추동하였다. 그러면서 높은 석탄생산성과로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더 잘 받들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이와 함께 일군들이 탄부들의 가정형편도 속속들이 알아보고 풀어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모없는 로천갱의 강동무를 비롯한 청년들의 결혼상을 성의껏 차려주고 축하해주었다.

격식없이 진행된 정치사업은 탄부들의 열의를 불러일으켰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이에 맞게 집중경제선동의 포화를 더욱 드세차게 들이댔다. 직관선동, 방송선전, 혁신자축하모임…

적극적이고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화선식정치사업의 위력은 높은 생산실적으로 이어졌다.

탄광에서는 설비, 자재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매일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석탄생산을 늘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탄부들속에서 발휘되는 혁신적인 일본새와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놓치지 않았다.

그리하여 탄광은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적으로 석탄생산계획수행률이 제일 높은 탄광으로 자랑떨치고있다.

본사기자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가자

건설에 대한 정책적지도를 잘하기 위한 방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년사에서 밝혀주신대로 올해에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놓기 위해서는 건설사업에 대한 정책적지도를 잘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정책을 틀어쥐고 그 집행을 장악지도하여 당정책이 끝까지 철저히 집행되도록 하는것이 당적지도이며 정책적지도입니다.》

건설에 대한 정책적지도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를 모든 건설공정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빈틈없이 장악지도하는 사업이다.

현시기 건설에 대한 정책적지도를 잘하는것은 건설부문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기 위한 매우 책임적인 사업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일찌기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건설부문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조국청사에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몸소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신 때로부터 빈터우에 주체적이며 인민적인 건축의 새력사를 펼치시고 위력한 자립경제의 나라, 행복한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조국건설구상을 주체의 건축대강으로 발전풍부화시키시고 사회주의대건설의 일대 앙양기를 펼치시여 조국땅우에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수풀처럼 솟아오르게 하시였다.

주체건축창조의 갈피마다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탁월한 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는 사업은 철두철미 건설에 대한 정책적지도를 옳게 진행할 때만이 성과를 거둘수 있다.

현시기 건설에 대한 정책적지도를 잘하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건설구상을 최상의 높이에서 실현하기 위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선군조선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안겨주기 위한 오늘의 대건설전투를 몸소 진두에서 지휘하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근에 나라의 중요건설장들을 련이어 찾으시고 건축형성안으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여 하나하나의 건축물들이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일떠서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금수산태양궁전이 주체의 최고성지,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지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같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는 기념비적건축물들과 문수물놀이장, 은하과학자거리,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우리 인민이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건설대상들이 세계적수준으로 훌륭히 일떠섰다.

가까운 앞날에 나라의 전반적면모를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시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건설구상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건설부문의 정책적지도사업을 맡은 우리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은 건설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놓는데서 정책적지도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에 대한 정책적지도를 잘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이 부문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유일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최상의 높이에서 받들어나가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우리 당의 건설정책의 기본내용은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국토 및 도시건설총계획에 엄격히 준하는 원칙에서 모든 건설을 진행하는것이다. 또한 하부구조공사를 앞세우고 하나하나의 건설물을 그 성격과 해당 지역의 특성이 살아나게 일떠세우도록 하며 자체의 건설력량을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이와 함께 건재의 국산화를 원만히 실현하고 원림록화사업에도 큰 힘을 넣는것이다.

모든 일군들은 건설부문에 대한 우리 당의 정책적요구를 잘 알고 그 집행정형을 빠짐없이 장악지도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건설부문 사업과 관련한 당의 방침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말고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건설사업정형을 손금보듯 꿰들고 대오의 앞장에서 완강하게 실천하는 기관차가 되여야 한다.

건설과정에 제기되는 문제와 편향들을 제때에 바로잡아주는것은 일군들의 정책적지도과정에 놓치지 말아야 할 기본고리의 하나이다. 일군들은 건설실천과정에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늘 현장에 나가 대중의 창발적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설계와 시공으로부터 운영준비에 이르는 건설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능숙히 풀어나가야 한다.

건설에 대한 정책적지도를 바로하자면 일군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현시기 일군들의 실력을 높이는것은 단순히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정책을 결사옹위하는 사상과 관점문제이다. 일군들은 건설부문에 대한 당의 방침과 지시, 건설정책을 깊이 연구하여 그 진수를 완전히 파악하고 정책적지도의 유일한 기준으로,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일군들은 건설부문 과학기술에 대하여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선진적인 건설기술을 터득하지 않고서는 건설부문에 대한 정책적지도를 잘할수 없고 따라서 높은 건설성과도 기대할수 없다. 일군들은 언제나 앞선 건설과학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건설부문 사업에 정통한 박식가가 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선군조선의 새로운 비약의 년대를 펼쳐나가는데서 건설부문 사업을 매우 중시하고있다.

모든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1차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건설에 대한 정책적지도를 참신하고 기백있게 진행해나감으로써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지원철

그는 조선인민군 중대장이였다

조선인민군 리철남소속부대에서 복무하던 함주현동무에 대한 이야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에 바친 값높은 생은 조국과 더불어 영생합니다.》

우리가 말하려는 주인공은 조선인민군 중대장이다. 그는 수도의 한 건설장에서 뜻밖의 정황이 조성되였을 때 중대군인들을 구원하고 희생되였다.

그가 생명을 서슴없이 내댄 곳은 적의 총구가 노리는 최전방 초소도, 조국의 운명이 판가름되는 결전장도 아니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로동계급의 꿈과 랑만을 안고 하루가 다르게 층층이 솟아오르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합숙건설장, 바로 여기에서 한 조선인민군 중대장의 불굴의 희생정신이 높이 발휘되였다.

조선인민군 리철남소속부대에서 복무하던 함주현동무, 어찌하여 그는 전쟁시기도 아닌 평화로운 나날에 자기의 한목숨을 아낌없이 바쳤는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 관철을 위하여!

지난해 10월 15일 김정숙평양방직공장구내로는 인민군군인들이 들어섰다.

씩씩하고 름름한 그 모습들을 보며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을 받은 전사의 자세와 립장에 대해 다시금 절감하였다.

패기와 열정에 넘쳐 공사현장에 배낭을 풀어놓는 인민군대의 그 대오속에 함주현동무와 그의 중대도 있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고 그달음으로 공장으로 달려온 함주현동무의 가슴은 세차게 높뛰였다.

그때 그의 귀전에는 공장을 찾으시여 이곳 종업원들의 생활문제를 푸는것으로써 중요생산단위 종업원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의 신호탄을 쏴올리자고, 공장합숙을 표본이 되게 잘 건설하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음성이 쟁쟁히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그날 그는 중대군인들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뜻을 높이 받들고 공장합숙건설에서 우리가 신호탄을 쏴올리는 방아쇠가 됩시다!》

이런 결심을 안고 함주현동무는 첫날부터 중대의 앞장에서 군인들을 위훈과 혁신에로 불러일으켰다.

착공의 삽을 박은지 얼마 안되여 겨울이 닥쳐왔다.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날 함주현동무네 중대는 지열탕크설치를 위한 굴착작업을 하고있었다.

한m, 또 한m…

10m정도 땅을 팠을 때 물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중대군인들은 함주현동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어떻게 할것인가.)

그는 중대군인들의 얼굴을 한명한명 둘러보았다. 자기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에서 함주현동무는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깨달았다.

—중대장인 내가 한걸음 주춤하면 대오가 서게 되고 내가 멈춰서면 중대는 후퇴하게 된다.

《결사전을 벌리자. 군관동무들은 날따라 앞으롯!》

그는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물속으로 뛰여들었다. 그의 뒤를 중대군관들이 따랐다.

며칠후 미장작업이 제기되였을 때에도 그는 불편한 몸이였지만 작업이 끝날 때까지 현장을 뜨지 않았다.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중대의 앞장에서 지휘를 하느라 입술이 부르트고 눈에 피발이 선 중대장에게 그날 정치지도원은 좀 쉬라고 말했었다.

목에서는 겨불내가 나고 눈앞에 수많은 별찌들이 아물거려 몸을 지탱하기 힘들었지만 함주현동무는 그에게 그저 웃어보이였다.

그런 그를 보는 정치지도원의 눈앞에는 중대장은 짐을 져도 무거운 짐을 져야 하며 삽질을 해도 삽날에 불이 일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언제나 앞장에서 달리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런 지휘관이였기에 그는 희생되는 날에도 대오의 앞장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을 맡아하였다.

지난 2월 28일 하루일을 끝내고 병사들을 휴식시킨 함주현동무는 군관, 사관들과 함께 다시 작업현장으로 나갔다. 건설중에 있는 방직공장합숙 3호동 건물앞에 있는 양수장의 휴계실층막작업이 제기되였기때문이였다.

그날 흔연히 앞장에서 양수장안으로 들어가는 그에게 1소대장 김광일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중대장동지, 이번 작업은 우리가 하겠으니 우에서 지휘만 하십시오.》

그러는 그에게 함주현동무는 말하였다.

《중대장이 뒤에 서서야 안되지.》

이렇게 말하며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모습은 그들로 하여금 인민군지휘관이라면 대오의 앞장에서 병사들을 이끄는 돌격의 기수가 되여야 한다는 자각을 더 깊이 간직하게 하였다.

작업이 시작되여 한시간정도 지났을 때였다. 혼합물이 덧쌓여지자 갑자기 한쪽으로 중량이 실리면서 층막휘틀이 앞으로 밀려나게 되였다.

뜻밖의 정황이였다. 순간 함주현동무는 몸을 날려 《비키라!》하고 소리치며 중대군인들을 반대켠벽쪽으로 힘껏 밀쳐버렸다. 그리고는 혼합물과 함께 아래로 떨어졌다.

그는 이렇게 갔다. 5명의 중대군인들을 구원하고 그는 영웅적으로 희생되였다.

불과 두시간전까지만 해도 하루 미장작업을 세시간이나 앞당겨 끝낸 자랑을 안고 펼쳐진 중대오락회에서 병사들과 함께 흥겨운 노래가락을 뽑던 함주현동무였다.

…

그가 남긴 사품들중에는 하나의 수첩이 있다. 그가 늘 품에 간직하고있었다는 그 수첩의 맨 앞장에는 《나는 오늘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 관철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였는가?》라는 글이 적혀있었다. 훈련의 나날에나 건설의 나날에나 그는 이 물음앞에서 하루를 총화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하나의 신조로 여기였다.

그 물음앞에서 떳떳하면 발편잠을 잤고 떳떳치 못하다고 생각될 때면 그는 다시 자리를 차고 일어나군 하였다.

그에게는 남다른 습관이 있었다. 하루일이 끝나면 꼭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는것이였다.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받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어린 《승리》시계였다.

류달리 눈길을 끄는 《승리》라는 글발을 보며 그는 하루일과를 시작하고 마무리하였다.

그 시계의 초침소리를 그는 우리 인민군대가 언제나 승리하기만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당부로 가슴에 새기였다.

승리, 그것은 결코 말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간의 영웅적위훈으로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 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체질화한 사람들만이 승리의 언덕에 당당히 올라설수 있는것이다.

하기에 그는 그 길에서 한목숨을 아낌없이 바친것이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 관철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칠줄 아는 우리의 미더운 인민군군인들, 함주현동무는 그들중의 한사람이였다.

사랑하는 전사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대장동지와 함께 생활한 나날은 열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와 만난 중대군인들의 말이였다.

그러나 중대장 함주현동무에 대한 그들의 추억은 퍼내고퍼내도 마를줄 모르는 샘처럼 끝이 없었다.

중대정치지도원 차광일동무는 우리에게 한장의 그림을 꺼내놓았다.

거기에는 보기에도 아담한 병영 한채가 그려져있었다. 그 병영둘레로는 갖가지 꽃나무들이 서있었고 그앞에는 화단이 펼쳐져있었다.

《우리 중대장동무가 그린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긴장한 건설의 나날에도 함주현동무는 자주 사색에 잠기군 하였다.

종이장을 펼쳐놓고 무엇인가 적기도 하고 연필로 선을 쭉쭉 긋다가는 그것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빙그레 웃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저도모르게 쪽잠에 들때면 종이장을 꼭 품에 안고있는 그의 모습을 볼수도 있었다.

하루는 잠자리에 나란히 누워있던 함주현동무가 정치지도원의 옆구리를 툭 쳤다.

《좀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서 그앞에 종이장을 쑥 내밀었다. 바로 그 그림이였다.

그것을 들여다보던 정치지도원의 얼굴에 웃음이 어렸다.

《우리 중대병실이구만요. 헌데 이앞의 꽃들은 언제 폈나? 아하, 중대장동무 며칠동안 고심한다 했더니 우리 중대병실설계도를 그리댔군.》

저도모르게 환성을 지르는 정치지도원의 입에 함주현동무는 손을 가져다댔다. 그날밤 그들은 벙실벙실 웃으며 종이장우에 그려진 중대병실을 더 환하게 《꾸려》놓았다.

비록 몸은 건설장에 있어도 함주현동무의 마음속에는 항상 병사들의 보금자리가 자리잡고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바라시는대로 중대를 병사들의 정든 고향집으로 잘 꾸리자!

그의 마음속에는 중대군인들모두가 친형제로 자리잡고있었다.

함주현동무에게는 희생될 때까지 품고있은 한장의 사진이 있다. 그 사진을 놓고 중대의 신입병사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올해 양력설이였다.

《사진사가 왔다!》

제대를 앞둔 구대원으로부터 엊그제 입대한 신입병사에 이르기까지 중대에 온 사진사를 에워싸고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 관철을 위해 낮에 밤을 이어 전투를 벌리고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고향의 부모님들과 선생님, 동무들에게 보내고싶었던것이였다. 집체사진을 찍을 때였다.

근무를 수행하고있던 병사의 눈길이 사진을 찍고있는 동무들에게 쏠리였다. 그들이 부러워서였다.

그런데 문득 뒤에서 중대장의 웅글은 목소리가 들리였다.

《명성동무, 나와 교대하기요.》

《중대장동지, 전…》

병사는 못박힌듯 그자리에 서서 움직일줄 몰랐다.

《이건 명령이야!》

병사는 속마음까지 헤아려주는 중대장이 고마왔다. 그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사진사에게로 달려갔다. …

그 사진에는 중대장 함주현동무가 없다. 그러나 함주현동무는 사진뒤면에 《우리 중대》라고 큼직하게 쓴 그 집체사진을 늘 품속에 간직하고다녔다.

중대군인들에게 있어서 그는 고향집의 어머니였다.

김동무는 콩음식을 특별히 좋아하고 또 박동무는 속탈이 있다는것, 고향이 금야인 신입병사는 식성이 특별히 좋다는것 등 병사들을 위하는 그의 마음은 자식들을 거느린 어머니처럼 세심하고 살틀했다.

언제인가 중대의 신입병사 류영철동무가 감기에 걸려 앓고난 뒤였다.

별빛이 흐르는 작업장에서 한창 일하고있는데 누군가 다가와 손에 시원한것을 꼭 쥐여주었다.

《사과야.》

정깊은 중대장의 목소리였다. 그리고는 덤덤히 되돌아갔다.

상긋한 사과향기가 페부로 시원하게 흘러들었지만 병사의 눈굽은 뜨거워졌다.

고향의 어머니생각이 났다. 아플세라, 힘들세라 늘 보살펴주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지금도 곁에 있는것만 같아 그는 마음이 후더워졌다.

멀어져가는 중대장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입속으로 불렀다.

《어머니!》

그렇다. 그는 병사들의 어머니였다. 한창나이의 병사들을 위해 식사때에는 밥을 듬뿍듬뿍 덜어주고야 밥술을 뜨던 그, 나어린 병사들이 훈련에서 지쳐 잠에 들 때면 목달개도 달아주고 흙묻은 그들의 신발을 빨아 말리워 놓아주군 하던 중대장의 모습은 중대의 맏형이기 전에 고향집어머니였다.

함주현동무가 병사들과 함께 생활한 열달의 하루하루는 바로 이런 어머니사랑으로 흘러갔다.

한발만 비켜서면 제 한목숨은 건질수 있었던 순간에 그는 사랑하는 전사들을 위하여 생명을 서슴없이 바치였다. …

함주현동무가 희생되기 얼마전에 그의 안해 김수련동무가 건설장에 찾아왔다.

장갑이며 배띠를 비롯한 원호물자를 병사들에게 안겨주는 그의 눈앞에 어깨우에 별이 하나 더 늘어난 남편의 모습이 안겨왔다.

그날 그는 남편의 어깨우에 빛나는 별을 어루쓸며 말하였다.

《여보, 오늘 가족사진 찍는게 어때요? 당신 상위가 된걸 축하해서.》

그도그럴것이 딸 련이가 두살이 넘도록 아직 가족사진 한장 남긴것이 없었기때문이였다.

함주현동무는 안해의 손을 꼭 잡고 말없이 대동강가를 한참동안 거닐었다. 그러다가 그는 안해에게 말하였다.

《우리 저 합숙이 완공된 다음에 련이랑 병사들과 함께 가족사진 멋있게 찍기요.》

병사들과 함께!

그의 가슴속에는 병사들이 한집안식구처럼 자리잡고있었다.

*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 관철을 위하여, 사랑하는 전사들을 위하여 생명도 아낌없이 바친 조선인민군 중대장 함주현동무!

그는 이제 30살밖에 되지 않았다.

살아온 나날보다 삶을 빛내여야 할 날과 달이 더 많았던 그, 누구보다 꿈도 많았고 리상도 높았던 그, 처자에 대한 넘치는 사랑을 한가슴에 묻어두고 오직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 관철을 위하여 불같이 산 그의 길지 않은 삶은 말해주고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 관철을 위하여, 사랑하는 전사들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각오가 되여있는 참된 지휘관들이 우리 군대의 중대들을 맡고있어 조선인민군은 그토록 강한것이다.

본사기자 오은별

보다 훌륭한 래일을 그리며

자강도도시설계연구소 일군들과 설계가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설계가들은 설계탁에서 문명국의 래일이 그려진다는것을 명심하고 당의 구상과 인민의 지향에 맞게 설계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합니다.》

자강도도시설계연구소의 설계가, 설계원들이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높이 받들고 설계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여 시공단위들에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에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연구소의 일군들은 선후차를 옳게 정하고 소년단야영소와 소년궁전, 육아원, 애육원을 비롯한 수십개 대상건설에 필요한 설계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장자산소년단야영소, 배움의 천리길학생소년궁전형성안을 보아주시고 빨리 건설하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높이 받들고 연구소에서는 유능한 설계가, 설계원들을 선발하여 장자산소년단야영소와 배움의 천리길학생소년궁전에 대한 기술설계를 시급히 완성하여 시공단위들에 보장해주기 위한 긴급대책을 세웠다.

설계가, 설계원들은 측량공들과 함께 장자산의 산발과 골짜기를 오르내리며 지형과 지반조사를 진행하고 자연풍치에 잘 어울리게 소년단야영소의 건축도면을 훌륭히 완성하였다.

이들은 지금 구조설계와 난방, 급수와 배수, 조명보장을 위한 기술설계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는 차제로 시공단위들에 넘겨주고있다.

연구소의 설계가, 설계원들은 배움의 천리길학생소년궁전의 평면도도 짧은 기간에 작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소조활동의 편의를 보장하면서도 학생소년궁전의 특성이 잘 살아나게 건축, 구조, 기술설계를 시급히 완성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보장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강계시를 더 잘 꾸릴데 대하여 주신 말씀을 높이 받들고 연구소의 일군들과 설계가, 설계원들은 자기 지방의 특성이 잘 살아나도록 훌륭한 설계를 내놓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연구소의 설계가, 설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강계시의 실내물놀이장형성안과 부창유치원, 체육인숙소형성안이 특색있게 완성되였다. 이어 설계가, 설계원들은 이 대상들의 하부구조설계, 기술설계를 완성하기 위하여 창조적지혜를 합쳐가고있다.

연구소의 설계가, 설계원들은 강계시 향로동지구에 대한 환경조사와 측량을 끝내고 공원, 탁아소, 유치원, 진료소, 문화후생시설을 갖춘 다층로동자살림집구획설계를 훌륭히 완성하기 위해 창조적지혜를 합쳐가고있다.

특파기자 동세웅

건설장으로 달리는 뜨거운 마음

룡성구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 동원된 평양시려단의 전투원들이 희천9호발전소건설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그 대오속에는 룡성구역대대의 돌격대원들도 있다.

룡성구역대대가 날마다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고있는것은 룡성구역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진정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룡성구역당위원회에서는 구역안의 공장, 기업소일군들의 협의회를 열고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잘하기 위한 방도들을 토의하고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담배련합기업소 일군들은 종업원들에게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 발휘되고있는 돌격대원들의 투쟁위훈에 대하여 알려주면서 그들의 정신력을 폭발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일군들이 앞장에 서니 발전소건설지원사업이 기업소적인 사업,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고 더 활기있게 벌어졌다.

룡성구역당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여러 공장, 기업소일군들도 발벗고나선 가운데 많은 량의 지원물자들이 마련되여 건설장으로 보내여짐으로써 돌격대원들에게 큰 고무를 안겨주었다.

지난해 룡성구역대대 돌격대원들이 희천9호발전소 언제우안의 수문기둥공사를 맡아안고 제일먼저 수문기둥정점들에 승리의 기발을 꽂은 사실과 올해 1월에 이룩한 언제좌안의 가물막이성과 등은 룡성구역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물심량면의 지원사업과도 련관되여있다.

룡성구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려는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발전소건설지원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뜨거운 애국의 마음안고 공원을 더 잘 꾸리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중구역공원관리소 대동문공원에서— 본사기자 김철우 찍음

사랑받는 분조장

신천군 발산협동농장 청년분조장 백기철동무는 농장원들속에서 우리 분조장으로 불리우며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다.

일욕심이 많은 그는 언제나 실천적모범으로 분조원들을 이끌어 알곡생산에서 농장적으로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다.

또한 언제나 분조원들의 맏형이 되여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고있으며 그 과정에 분조를 화목하고 단합된 집단으로, 전투력이 강한 분조로 되게 하였다. 하여 청년분조는 다정한 한식솔이 되고 모든 분조원들이 농사의 주인이 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작업반의 자랑으로, 농장의 기수들로 앞장에서 달려나가고있다.

높은 책임성과 뜨거운 인정미로 대오의 앞장에서 분조원들을 이끌어나가고있는 그를 온 농장의 농장원들이 사랑한다.

로농통신원 정연화

제29차 도(직할시)과학기술축전 진행

【평양 3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제29차 각 도(직할시)과학기술축전들이 2월 25일부터 3월 21일까지 진행되였다.

축전들에는 시(구역), 군과학기술축전들에서 당선된 과학연구 및 교육기관들,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축전들에 농업과 건설을 비롯하여 나라의 경제와 과학기술발전,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수천건의 론문들, 제품들을 출품하였다.

축전들에서는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 새 기술교류, 첨단기술강의 등이 진행되였다.

많은 연구론문들과 각종 전시품들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우리의 자원과 기술로 모든 제품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기 위한 피타는 탐구의 나날에 이룩한 가치있는 성과들인것으로 하여 참가자들과 참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축전들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체들과 참가자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폴판조성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해 지혜를 합쳐가고있는 2월17일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인디아에 가는 보건성대표단 출발

【평양 3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인디아의 뉴델리에서 진행되는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 소아마비근절확정위원회 제7차회의에 참가할 강하국 보건상을 단장으로 하는 보건성 대표단이 22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김형훈 보건성 부상과 스테판 파울 죠스트 주조 세계보건기구 대표가 전송하였다.

맑은 눈동자에 비낀 수호자의 모습

◎ 평안남도인민보안국 교통보안일군들에 대한 이야기 ◎

푸른 견장에 새겨진 별은 무엇으로 더욱 빛나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가슴뜨거운 사실이 있다. 우리는 여기에 후대들을 위해 바친 평안남도인민보안국의 김대화동무를 비롯한 교통보안일군들의 아름다운 소행에 대한 이야기를 적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미래를 위하여! 이것은 조선혁명의 전력사에 관통되여있는 고귀한 혁명정신입니다.》

지난해 8월 어느날이였다.

평안남도인민보안국의 교통보안일군인 김대화동무는 도보안국의 한 일군으로부터 평성시 주변농장의 한 작업반탁아소가 큰물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김대화동무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누가 명령을 내린 사람은 없었다. 인민의 행복을 지켜선 수호자의 사명감이 그 길로 떠민것이였다.

피해상황은 김대화동무가 생각했던것보다 더 컸다. 탁아소는 세찬 폭우에 의한 산사태로 하여 형체를 알아볼수 없게 무너져버렸던것이다.

그자리에 못박힌듯 서있는 김대화동무의 눈앞에는 문득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행사에 참석하시여 우리 어린이들의 미래를 축복해주시며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떠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뜻을 누구보다 앞장에서 받들어야 할 우리 인민보안군들이 아닌가.)

지체없이 부서로 돌아온 김대화동무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큰물피해로 30여명의 어린이들이 탁아소에 가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자체의 힘으로 당창건기념일전으로 큰물피해를 입은 탁아소를 새로 지어주자는것을 제기합니다.》

김대화동무의 말에 부서의 모든 성원들이 한목소리로 호응해나섰다. 구체적인 계획과 치밀한 조직사업이 진행되였다.

다음날부터 탁아소건설을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교통보안일군들과 함께 현지로 달려나간 김대화동무는 양지바른 곳에 탁아소위치를 정하고 건설전투를 지휘하였다.

시에서 수십리나 떨어진 농장, 그것도 농장의 제일 막바지에 자리잡고있는 작업반까지 적지 않은 량의 건설자재를 운반해온다는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거기다가 때때로 쏟아지는 소나기로 하여 교통조건도 몹시 불리했다. 교통보안일군들은 길이 험해서 륜전기재들이 미처 도착하지 못할 때에는 손달구지와 등짐으로 물동량을 운반하였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농장의 한 일군은 《온몸을 땀으로 적시며 등짐으로 건설자재를 져나르는 교통보안일군들을 보며 우리 농장원들은 정말 감동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그 한사람한사람이 돌격전에 나선 병사들같았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렇다. 그들은 어린이들에게 하루빨리 밝은 웃음을 안겨주기 위해 스스로 돌격전에 나선 병사들이였다. 어깨우에 빛나는 별의 무게를 심장에 새긴 보안일군들이였기에 근무교대가 끝나면 그들은 탁아소건설장으로 달려가군 하였다.

최성철, 김성철동무들은 건설현장에서 침식하면서 전투를 벌렸다. 김대화동무는 하루일이 끝나면 꼭꼭 탁아소건설장에 나와 걸린 문제를 알아보며 직접 손에 미장칼을 쥐고 일손을 다그쳤다. 어떤 날에는 승용차조명까지 비쳐가며 자정이 넘도록 탁아소건설을 내밀었다.

불같은 전투의 날과 날이 흘렀다.

김철호, 김원일동무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초상화와 영상사진을 모실 액틀까지 품위있게 만들어 보내주었고 김정오, 한범도, 김원용동무들은 탁아소를 현대적미감에 맞게 꾸리는데 필요한 자재들을 해결하기 위해 낮과 밤을 잊고 뛰여다녔다.

교통보안일군들은 또한 큰물피해막이대책을 빈틈없이 세우도록 적극 떨쳐나 탁아소에 필요한 비닐레자, 모포, 베개, 요람, 유모차를 비롯하여 여러종의 놀이감과 식기, 숟가락, 식칼과 칼도마까지 일식으로 갖추어주었다.

탁아소책임자 백명선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교통보안일군들의 안해들이 우리 탁아소건설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장만해두었던 례장감까지 바쳤다는것을 알고 우리 보육원들은 모두 눈굽을 적시였습니다.》

40여일간의 탁아소건설전투를 통하여 농장원들은 참된 인민의 보안원이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를 더욱 똑똑히 알게 되였다.

지난해 10월 9일 탁아소입소식이 진행되였다.

그날 온 마을의 남녀로소가 모두 떨쳐나 춤판을 벌리면서 우리 당의 고마움을 목청껏 노래하였다. 해빛밝은 탁아소에서 웃음꽃을 활짝 피우며 뛰노는 어린이들의 정다운 모습을 바라보는 교통보안일군들과 안해들의 얼굴에도 행복의 미소가 떠날줄 몰랐다.

어느덧 작별의 순간이 왔다.

더없이 미덥고 자랑스러운 인민의 보안원들을 동구밖까지 따라나서며 바래워주는 농장원들의 얼굴로는 뜨거운것이 소리없이 흘러내렸다. 그들은 이런 훌륭한 인민보안원들을 키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마음속으로 삼가 큰절을 올리며 심장의 목소리를 터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고맙습니다!》

이것이 어찌 비단 이곳 농장원들만의 심장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라고 하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감동깊은 사실들이 전설처럼 수놓아지고있는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울려나오는 심장의 웨침인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안남도인민보안국 교통보안일군들의 소행을 보고받으시고 은정어린 감사를 보내주시였다.

영광의 그날 김대화동무를 비롯한 교통보안일군들은 불같은 신념의 맹세를 더욱 굳게 다지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답게 인민의 행복을 위한 복무의 길에서 한생을 별처럼 빛나게 살겠습니다.)

본사기자 김일권

위대한 어버이사랑을 길이 전하는 평양보링관

지난 2월 19일부터 2월 21일까지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자리잡고있는 평양보링관에서는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보링경기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평양보링관을 찾아주시였던 뜻깊은 현지지도기념일을 맞으며 진행되는 경기대회인것으로 하여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 대회참가자들과 관람자들의 감격은 참으로 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들이 문화정서생활을 락천적으로 다정다감하게 하도록 하자면 그에 필요한 수단을 잘 보장하여주어야 합니다.》

보링은 특수한 나무 등으로 된 주로의 한쪽에서 공을 굴려 다른쪽 끝에 놓여있는 10개의 핀(나무로 된 곤봉모양의 목표물)을 넘어뜨려 얻은 점수를 가지고 승패를 가르는 체육경기종목이다.

고대에짚트에서 오늘의 보링과 류사한 유희에 리용한것으로 추측되는 대리석으로 만든 공과 핀 등을 20세기초에 영국의 한 고고학자가 발견한것이 보링의 발생발전과 관련한 가장 오랜 력사자료로 되고있다.

기록에 의하면 3~4세기에 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서는 《봉넘어뜨리기》라는 종교의식이 진행되였다고 한다.

보링은 여러가지 양상을 가지고 보급발전되였는데 사용하는 기재와 경기규칙들도 나라마다, 도시마다 서로 달랐다.

그러던것이 19세기말에야 비로소 주로길이, 핀과 공의 크기 등이 통일적으로 정해졌으며 체육종목으로서의 보링경기규칙도 정식화되게 되였다고 한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보링핀설치를 비롯하여 모든 공정들이 자동화, 콤퓨터화되였다.

1952년에 국제보링련맹이 설립되였으며 세계선수권대회와 아시아선수권대회 등 여러 국제경기들이 진행되고있다. 보링은 1978년 타이에서 진행된 제8차 아시아경기대회때부터 아시아경기대회의 정식경기종목으로 되였다.

보링에서 한경기는 10회전으로 구성되며 한회전에서 공은 두번 굴릴수 있다. 한회전에서 첫번째 공으로 10개 핀을 다 넘어뜨렸을 경우 두번 더 굴릴수 있으며 두번째만에 다 넘어뜨렸을 때에는 한번 더 굴릴수 있다.

보링은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누구나가 다 즐길수 있는 운동이다. 한번 공을 굴려 10개의 핀을 모두 넘어뜨렸을 때의 쾌감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다.

보링은 피로를 가셔주고 심리적안정상태를 유지해주며 신경계통을 발달시키고 내장, 뇌수의 기능을 높여준다. 이러한 보링운동은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은정속에 지금으로부터 20년전인 주체83(1994)년 2월에 평양보링관이 개관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생활에 문화정서적량만을 더해주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부강번영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려는 재일동포들의 고결한 애국의 마음을 귀중히 안아주시고 평양에 보링관을 훌륭히 일떠세우도록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풍치 아름다운 대동강기슭의 명당자리에 터전도 잡아주시고 평양보링관을 단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리용할수 있고 또 국제경기도 할수 있게 통이 크게 건설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하여 평양보링관은 1만수천㎡의 건평에 40개의 주로를 가진 현대적인 보링설비뿐아니라 1층과 2층 등에 여러가지 오락시설, 한증탕과 식당, 상점을 비롯한 봉사시설을 그쯘히 갖추고 국제경기도 할수 있는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기지로 특색있게 일떠설수 있었다.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주체83(1994)년 2월 25일 새로 건설된 평양보링관을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훌륭하게 잘 지었다고, 설계를 잘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한 재일동포 상공인과 그의 가족들의 애국충정을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주시였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언제인가 가보았던 어느 한 나라의 보링관을 회고하시며 평양보링관은 그에 비하면 현대적이고 크게 잘 건설하였다고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앞으로 운영과 설비관리사업을 잘하여 우리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문화정서생활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더욱 빛내이시기 위하여 고난의 시기에도 평양보링관이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문화휴식장소로서 은을 내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은 끝이 없었다.

이렇듯 따사로운 태양의 빛발아래 그처럼 엄혹했던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평양보링관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져있었고 오늘까지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해올수 있었다.

평양보링관 지배인 신정호동무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해에 력사의 자욱을 남기신 때로부터 지난 20년동안 수백만명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남조선과 해외에 사는 동포들, 외국의 벗들이 이곳에서 체력을 단련하고 보링기술을 련마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번에 평양보링관에서 진행된 보링경기대회에만도 중앙기관일군으로부터 시작하여 근로청년, 대학생들뿐아니라 60나이를 넘긴 가정부인들도 참가하여 랑만적인 화폭들을 펼쳐놓았다. 남자개인경기에서 단연 1등을 한 어느 한 식료공장 종업원은 해마다 진행되는 이 경기대회에 련속 세번째로 참가하면서 처음으로 우승한 기쁨과 함께 이렇듯 명당자리에 훌륭한 평양보링관을 일떠세워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고마움의 정을 금치 못하였으며 온몸에 솟구치는 청춘의 열정을 다 바쳐 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결의를 토로하였다.

* *

한평생 끊임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며 명당자리들마다에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워주신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가 세차게 굽이치는 평양보링관, 그 주위에 새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로 솟아올라 인민의 행복을 더해주는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로라스케트장, 릉라인민유원지…

진정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태양복속에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인민의 행복 천가지 만가지로 더욱 활짝 꽃펴날 우리 조국의 래일은 또 얼마나 가슴벅찰것인가.

본사기자 오철룡

조국에 드리는 승리의 보고—9개의 금메달

2014년 아시아청년 및 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리성금, 림은심, 김수정선수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선수들의 사상정신상태와 투지, 민첩성과 기술은 체육경기의 성과를 결정합니다.》

얼마전 타이에서 진행된 2014년 아시아청년 및 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나라의 선수들이 9개의 금메달을 비롯한 20여개의 메달을 쟁취하였다. 아시아지역의 적지 않은 나라들은 력기수준이 높으며 세계 새 기록수립에서도 우세를 차지하고있으므로 이번 선수권대회는 앞으로 진행하게 될 세계선수권대회와 올림픽경기대회의 우승후보자들을 예측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세계 새 기록과 2분간

이번 대회의 청소년녀자 44㎏급경기에 출전한 초병체육단의 리성금선수가 추켜올리기 두번째들기에서 88㎏을 성공시켰을 때 다른 나라의 선수들은 세번째들기에서도 88㎏을 성공시키지 못했기때문에 우승은 이미 결정되여있었다.

그러나 리성금선수는 세번째들기로 93㎏을 신청하였다. 그는 침착하게 세번째들기를 위한 육체적 및 심리적준비를 하였다.

2분간이라는 짧은 휴식시간에 조광원감독은 선수에게 조국인민들이 지금 동무의 경기를 지켜보고있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동무의 세계 새 기록수립보고를 기다리고계신다고 신심을 북돋아주었다.

필승의 신심을 안고 세번째들기에 나간 리성금선수는 폭발적인 힘으로 93㎏을 들어올림으로써 마침내 세계 새 기록을 세웠으며 추켜올리기와 끌어올리기, 종합에서 각각 우승하여 3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올림픽금메달 수상자의 동생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여 세계력기계를 놀래운 우리 나라의 림정심선수가 제6차 동아시아경기대회 녀자력기 69㎏급경기에서도 단연 우승한 성과를 사람들은 지금도 기억하고있다.

이번 2014년 아시아청년 및 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 청년녀자 58㎏급경기에 출전한 림은심선수는 바로 그 림정심선수의 동생이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기관차체육단의 림은심선수는 언니처럼 조국의 영예를 금메달로 빛내이기 위하여 피타는 노력을 기울였다. 기관차체육단의 김춘희감독의 지도를 받으며 그는 더욱 이악하게 기술을 련마해나갔다.

가슴에 조국을 안고 훈련장에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뿌려온 림은심선수의 성실한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2014년 아시아청년 및 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 청년녀자 58㎏급경기의 모든 세부종목과 종합에서 다 1위를 차지하고 언니처럼 조국의 영예를 떨치는 우승의 단상에 오른 그의 가슴에서는 3개의 금메달이 환희롭게 빛났다.

결전장에 나선 병사마냥

기관차체육단의 김수정선수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훈련도중 부상을 당했었다.

그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훈련해서는 안된다고 의료일군들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하지만 김수정선수는 훈련장을 떠나지 않았다.

의료일군들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세웠지만 부상을 완쾌시키지는 못했다. 그런 상태에서도 김수정선수는 결전장에 나선 병사마냥 결연히 경기무대에 나섰다.

당과 조국앞에 다진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전에는 쓰러질 권리조차 없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출전한 김수정선수는 청년녀자 75㎏급경기에서 3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여 어머니조국에 승리의 보고, 영광의 보고를 드리였다.

본사기자 백성근

중앙동물원에 희귀한 앵무새들이 새로 들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동물원과 식물원은 단순히 구경이나 시키는 곳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에 대한 지식을 넓혀주고 사회주의애국주의정신을 키워주는 문화휴식터입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정서생활환경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최근 중앙동물원에 관상적가치가 매우 큰 희귀한 앵무새들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중앙동물원에 새로 보금자리를 잡은 앵무새는 29종에 수백마리에 달한다. 그중 큰앵무는 16종, 모란앵무는 6종, 애기앵무는 7종이다.

앵무새는 생김새가 화려하고 사람들의 말을 흉내내기도 한다.

독특한 모양새와 우아한 깃의 색갈, 아름다운 소리는 물론 특이한 《회화》능력까지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앵무새,

앵무새들의 이러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있는것과 함께 깃색갈이 독특하게 선명하고 아름다우며 크기와 모양새가 다양한것 등으로 하여 이번에 들어온 앵무새들은 류달리 눈길을 끈다.

몸길이가 90㎝에 달하는 덩지크고 특별히 깃색갈이 아름답고 선명한 붉은금강앵무가 있는가 하면 노래를 잘 부른다는 앵무새도 있으며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말을 총알처럼 내뱉는 성미가 급한 앵무새도 있다.

류리금강앵무, 판모앵무, 홍관앵무 등 현재 중앙동물원에 새로 들어온 앵무새들의 생육상태는 좋다고 한다.

중앙동물원의 해당 기술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은정을 더욱 빛내일 일념에 넘쳐 새로 들어온 희귀한 앵무새들에 대한 관리에 보다 큰 힘을 넣고있다.

본사기자 박옥경

우리 당의 품속에서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쳐간다.
—삼지연학생소년궁전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호평받는 강냉이국수봉사

동흥산구역종합식당 양지강냉이국수집을 찾아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치와 떡, 국수를 비롯하여 우리 인민이 좋아하는 민족음식을 적극 장려하여야 하며 그것을 간편하면서도 맛있게 만들어 먹을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전 함흥시 동흥산구역의 양지바른 곳에 자리잡고있는 양지강냉이국수집을 찾았다.

때마침 저녁녘이라 국수집은 사람들로 붐비고있었다. 강냉이국수를 맛있게 들고있는 손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절로 흐뭇해졌다.

국수집이 손님들의 구미에 맞게 강냉이국수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우리를 이곳 책임자 리혜영동무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우리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주방도 돌아보았다.

음식의 첫맛은 눈맛에 있다는 말도 있지만 풋고추, 버섯등을 꾸미로 하고 시원한 오이랭국을 부어 손님들에게 내는 이곳 강냉이국수는 발이 가늘고 매끈하면서도 색갈 또한 보기 좋아 대번에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거기에다 국수의 질김도가 좋고 소화흡수률 또한 높다 하니 도안의 주민들속에서 소문이 날만도 했다.

꾸미와 국물의 맛을 조화롭게 맞추어 강냉이고유의 맛을 적극 살려낸 비결을 묻는 우리에게 리혜영동무는 이런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선군혁명령도의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일군들에게 강냉이국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언제나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과 음식문화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긴 이곳 봉사자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강냉이국수를 전문으로 하는 봉사단위의 특성에 맞게 국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렸다.

리혜영, 김윤옥, 김명신동무를 비롯한 봉사자들은 지혜와 열정을 합쳐 강냉이국수를 질적으로 만드는데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였다. 때로는 전문가들의 방조를 받느라 밤길을 걷기도 하고 강냉이국수를 만드는데서 경험을 가진 주민들을 찾아 먼길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그렇게 애쓴 노력이 있어 이들이 만든 강냉이국수는 짧은 기간에 소문나게 되였으며 지난해에 진행된 전국적인 강냉이국수경기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수 있었다.

이곳에서 직접 맛을 보고 내리는 손님들의 평가는 또 얼마나 좋은가.

《강냉이에는 콩팥기능을 좋게 하거나 동맥경화를 억제하는 여러가지 성분들이 많아 지난시기 우리 가정에서는 강냉이국수를 즐겨먹었다. 이곳에서 봉사하는 강냉이국수의 진미를 알게 된 후부터 자주 여기에 오군한다.》

《평양에서 함흥으로 출장을 오면 양지강냉이국수집을 찾는것이 이제는 습관처럼 되였다.》

이것은 도안의 어느 한 보건기관에서 일하는 의료일군과 평양시 평천구역 해운2동에서 사는 김유일동무뿐아닌 이곳을 찾는 손님들모두의 한결같은 목소리이기도 하다.

양지강냉이국수집의 자랑은 여기에만 있지 않았다.

동흥산구역 운흥2동에서 사는 최애순녀성은 이곳 봉사자들에게서 강냉이국수 만드는 방법을 배워 식생활에 리용한 후부터 자기 가정에서는 강냉이국수를 별식으로 해먹고있다고 자랑하였다.

그러면서 강냉이국수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멀리하던 80대 증엽의 시어머니도 이제는 달게 든다는 사실을 알고는 동안의 주부들이 저마다 배워달라고 어찌나 성화를 먹이는지 야단이라는 말까지 덧붙여 우리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해주었다.

이렇듯 우리는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인민사랑속에 우리의 민족음식이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 발전하고있음을 양지강냉이국수집에 대한 취재길에서 다시한번 느낄수 있었다.

본사기자 방경찬

책은 풍부한 지식을 주는 말없는 선생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번지고있는 조국의 장엄한 현실은 풍부한 지식을 가진 인재들을 더 많이 요구하고있다. 모든 사회성원들이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 앞날의 강성국가의 주인공으로서의 품격을 갖추자고 해도 누구나가 풍부한 지식,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해야 한다. 그러자면 온 사회에 책읽는 기풍이 차넘쳐야 한다.

책은 저격무기에 비유하면 예비탄창이나 같다.

샘줄기가 없는 곳에 양어장을 꾸리면 인차 바닥이 드러나게 되는것처럼 사람이 책을 보지 않으면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만다.

오늘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풍부한 지식을 주는 말없는 선생인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책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고 진리를 깨우쳐주는 말없는 스승입니다.》

청소년학생들은 책을 가까이하면 할수록 나라의 부흥이 빨라지고 책을 멀리하면 할수록 나라의 부흥이 떠지게 된다는것을 자각하고 어릴적부터 책을 읽는 좋은 버릇을 붙여야 한다.

누구나 책읽기를 즐겨하는 독서가가 되여야 하며 사회정치서적과 과학기술서적, 문예서적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책들을 많이 읽는 과정을 통하여 혁명적량식을 쉬임없이 마련해나가야 한다.

가정들에서 부모들부터가 책읽는 기풍을 세우는데서 본보기가 되여 자녀들이 짬시간도 아껴가며 책읽는 습관을 가지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청년동맹조직들에서 읽은책 발표모임같은것을 자주 조직하여 청소년학생들이 책읽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대학생들은 대학시절에 책을 읽고 또 읽어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뿐아니라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팔방미인이 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책읽기를 생활화하여 혁명과업수행에 적극 활용할수 있는 풍부한 지식을 끊임없이 습득하여야 한다.

날로 발전하는 오늘의 시대에 학습하지 않고서는 일할수도 전진할수도 없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책읽기를 생활화, 습성화하며 책읽는 운동이 하나의 사회적풍조로, 전인민적인 기풍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모든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책을 풍부한 지식을 주는 말없는 선생으로, 더없이 귀중한 생활의 길동무로 여기고 언제 어디서나 책읽는 기풍을 세움으로써 전사회적인 문화수준을 높이고 쓸모있고 폭넓은 지식과 실력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음악감상과 감정정서적감수

사람들은 음악감상을 통하여 음악을 자연스럽게, 폭넓게 접하고 체험하게 된다.

즉 청각을 통하여 음악의 고유한 형상수단과 수법에 의해 재현되는 음악적울림을 감수하면서 작품의 내용과 그 표현형식을 파악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은 예술을 감상할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종류와 형식의 음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음악의 내용을 정확히 리해하고 그 형식을 깊이있게 파악하면서 감정정서적으로 감수하는것이다.

음악을 감상하면서 내용만을 보는것, 또 내용을 무시하고 형식만을 중시하는것은 모두 그릇된 경향이다.

음악감상을 잘하자면 깊은 음악적사색속에 진행해야 한다.

음악은 자기의 고유한 음악적울림으로 현실에서 느끼는 인간의 정서적체험, 심리적충동에서 오는 감정정서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음악을 감상하는데서는 그것을 정서적으로 느끼고 받아들일수 있는 음악적사색이 필요하다.

음악적사색은 철저히 개인의 주관과 독단에 의한것이 아니라 작품의 내용과 감상하는 사람의 정서적체험에 기초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그래야만 음악의 내용이 감정정서적으로 진실하게 안겨오면서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된다.

음악감상을 깊은 음악적사색속에 진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작품이 담고있는 음악적정서를 깊이있게 느낄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것이다.

음악감상은 작품이 나오게 된 사회력사적환경 등에 대해서도 깊이 파악한 기초우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음악에는 창작당시의 시대적감정과 창작가의 사상미학적견해가 반영된다.

그러므로 창작가의 세계관과 시대적배경을 깊이 파악한 기초우에서 음악감상을 진행하면 작품을 더 쉽게, 빨리 리해할수 있다.

음악감상은 또한 악보를 보면서 진행하는것이 좋다.

악보를 보면서 음악을 감상하면 선률, 리듬, 화성과 같은 음악적언어들이 음악적울림의 재현과 함께 시각적으로 안겨오기때문에 음악을 쉽게 리해할수 있으며 작품의 형상적의의도 생동한 감정속에서 느낄수 있다. 뿐만아니라 악보를 보면서 진행하는 음악감상은 감상하는 사람의 음악지식을 높이는데도 도움을 주게 된다.

음악감상은 음악의 종류와 형식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누어볼수 있지만 크게 성악곡감상과 기악곡감상, 가극감상으로 구분할수 있다.

평양음악학원 작곡학부 황승철

극장에서의 례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중요한 정치행사에 참가하거나 극장관람을 갈 때 몸단장과 옷차림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문화성있게 하는것도 누구나 지켜야 할 공중례의도덕입니다.》

극장에서의 관람문화는 사람들의 문화적소양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그것은 문화생활의 다른 령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극장에서의 관람문화 역시 해당 나라와 민족의 문화도덕수준, 사람들의 인격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로 되기때문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은 극장에서의 질서와 례의도덕을 잘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도 사상정신적, 문화도덕적풍모를 더욱 훌륭히 갖추어나가야 한다.

극장을 비롯한 모든 문화시설들에는 그것을 리용하는 손님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과 질서가 있다.

누구나 극장에 갈 때 옷차림과 머리단장을 우리 인민의 정서에 맞게 바로 하는것과 같은 도덕규범들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예술작품들과 문화시설들을 소중히 대하는 표현이며 공연출연자들과 다른 관람자들에 대한 례의이기도 하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정숙을 보장해야 하며 관람도중에 큰소리로 말하거나 손전화기사용 등으로 공연진행과 관람에 지장을 주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정에 의하여 공연도중에 들어오는 경우 관람분위기가 깨지지 않게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조용히 자기 자리에 앉아야 한다.

공연을 볼 때 출연자들과의 정서적호흡을 잘해나가는것 역시 관람문화의 중요한 내용이다.

공연을 볼 때 제 감정에만 빠져 지나치게 박수를 오래 친다거나 먼저 박수를 치면 다른 사람들의 감흥을 깨칠수 있다. 또한 공연도중에 자주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따라부르면 연주가들에게 지장을 줄수 있다.

모든 사회성원들은 극장에서의 질서와 례의도덕을 잘 알고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켜나감으로써 시대의 요구에 맞는 높은 문화도덕수준을 보여주고 고상한 관람문화를 더욱 아름답게 꽃피우는데 적극 기여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셀렌의 기능

세계적으로 광물질(필수미량원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벌어지고있는데 그중에서도 셀렌이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있다.

셀렌은 강력한 항산화작용을 한다. 셀렌의 항산화능력은 비타민E의 1 000배에 달한다. 또한 셀렌은 항암원소로 중시되고있다. 셀렌은 종양세포의 에네르기공급을 차단해서 위축시키거나 소멸해버린다.

셀렌은 생명체의 면역력을 높여준다. 셀렌은 체액면역기능과 세포면역기능, 탐식세포기능에 일정한 영향을 준다.

셀렌은 심장혈관계통질병을 예방, 치료한다. 조사자료에 의하면 셀렌이 부족되는 지역에서는 셀렌이 풍부한 지역에 비해 고혈압, 심장병 등 순환기계통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3배로 높았다. 셀렌은 보호효소들을 만드는데 직접 참가하여 간장, 심장, 신장 등의 피사를 억제한다.

셀렌은 프로스타글란딘호르몬합성에서 없어서는 안될 물질이며 이 과정을 조절함으로써 정상혈압으로 되게 한다. 사람들의 질병 40여가지가 셀렌결핍과 관련된다. 륙지의 72%지역이 셀렌결핍지역에 속하며 우리 나라도 여기에 속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한 셀렌섭취량은 매일 0.05~0.2㎎이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에서 최근에 보다 효능을 개선시킨 셀렌보충영양제인 셀레노아민이 생산되여 셀렌의 효과적흡수와 리용에서 그 의의가 중시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연구사 신광훈

구강위생과 건강

예로부터 든든한 이발을 가지는것을 오복중의 하나라고 일러왔다. 그것은 든든한 이발이 건강과 장수의 비결일뿐아니라 사람들에게 젊음과 활력을 안겨주기때문이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원만히 해나가자고 해도 그렇고 건강을 유지하자고 해도 구강위생을 잘 지켜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입안을 깨끗하게 거두어야 이가 삭는것을 막을수 있고 치담을 비롯한 여러가지 구강질환에 걸리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발을 든든히 보호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구강위생관리를 잘하는것이다.

구강위생은 어릴 때부터 지키는것이 좋다. 어린이들에 대한 구강위생관리는 유치원, 학교 등에서의 구강위생상식교육과 가정에서 부모들의 관심 그리고 전문가적치료에 의해 진행될수 있다.

어린이들의 나이와 생활조건에 맞게 이닦기와 입가심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구강위생관리를 잘해주어야 한다.

젖이가 나오기 시작해서부터 소독된 가제나 솜으로 이발을 잘 닦아주며 부모들은 젖먹이시기의 어린이들이 젖제품 등을 넣은 젖병을 물고 잠들지 않도록 항상 관심을 두어야 한다.

어려서부터 이닦는 습관을 바로 키워주어야 한다.

1~3살 어린이들은 부모들이 치약을 묻힌 가제나 솜으로 이발을 닦아주거나 치솔에 치약을 조금 묻혀 옳바른 이닦기동작을 숙련할 때까지 차근차근 배워주어야 한다. 학령전어린이들은 자체로 앞이발과 어금이에 대한 이닦기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잠자기 전에 이를 닦는것은 이삭기예방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삭기를 예방하는데서 불화물을 사용하는것이 좋다. 불소치약이나 불화물입가심약 등은 이발의 굳은 조직에까지 깊이 침투하여 이발질을 튼튼하게 해주는 좋은 이발강화제들이다.

구강위생관리를 잘하자면 6개월에 한번정도 병원에서 구강치료를 받는것이 좋다.

류경구강병원 과장 리혜숙

돋보이는 머리단장

《이렇게 시원하게 머리를 깎으니 기분이 막 상쾌해지누만요.》

《손님의 마음에 든다니 기쁘군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형태로 깎아줄것을 요구한답니다.》

제1목욕탕에서 리발봉사를 받은 손님과 리발사가 주고받는 말이다.

머리단장을 하나 해도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게 하는 바로 여기에 약동하는 젊음으로 활력에 넘쳐있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정서적 미감이 비껴있는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한광명

온 누리에 빛나는 민족의 존엄과 영광

이 땅우에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환희와 감격이 넘쳐흐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일심단결의 기치높이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긴 우리 공화국의 위대한 백승의 력사가 세기와 세기를 이어 찬란히 빛나고 태양민족의 존엄과 긍지가 하늘에 닿고있다.

오늘 남녘겨레들의 가슴마다에는 탁월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일심단결의 위대한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는 확신이 새겨져있다.

서울의 한 언론인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 수령, 자기 정권에 대한 이북민중의 지지는 변함이 없고 절대적임을 나는 다시 한번 똑똑히 확인했다. 이것은 오직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이북의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였다.

인천의 한 지식인은 지구상에 정치가 생겨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아무리 력사를 더듬어보고 세계를 둘러보아도 진정한 민중중시, 민심반영의 정치를 실현한 곳은 오직 이북밖에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이북에서는 오랜 세월 인류가 그처럼 갈망하던 진정한 민중중시의 정치가 참답게 실현되고있다. 이북이야말로 인류의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는 민중의 참세상이다. 민중복지의 보금자리인 이북, 자주적삶을 누리는 이북민중이 부럽다.》

서울대학교의 한 법학교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김일성주석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장군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이북에서는 전체 민중이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국가관리에 참가하고 정당, 사회단체조직들에 망라되여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벌리고있다. 또한 로동과 휴식, 무료교육, 무상치료 등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국가적혜택을 받고있다.》

남조선의 한 종교인은 《위대한 인간사랑의 정치로 이북에 민중이 복락을 누리는 지상천국을 펼쳐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령도자님은 정녕 우리 민족의 하느님이시다. 아이들이 자기를 품어주는 어머니품을 찾는것처럼 백성들은 자기를 품어주고 지켜주는 령수를 따르기 마련이다. 우리 민족은 누구라 할것없이 영명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령도자님을 영원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라고 격조높이 웨치였다.

남녘인민들이 터치는 이 목소리들에는 인민들을 나라와 주권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한없는 경모심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공화국은 인류의 리상향, 참다운 인민의 나라로 더욱 무궁번영할것이라는 확신이 어리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고결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를 천품으로 지니시고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로운 장을 펼치시여 우리 공화국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으로 온 누리에 빛을 뿌리게 하시였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높은 뜻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정치에 의해 참다운 삶을 누려가는 우리 인민들의 행복넘친 모습에 대한 찬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남조선의 어느 한 출판물에 실렸던 글을 통해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남녘인민들의 동경심을 잘 알수 있다.

《이북은 민중중시사상을 초석으로, 기둥으로 하고있다. 그에 기초하여 당과 정권, 제도가 서있다. 그래서 로동당은 향도자이면서도 민중을 자식처럼 돌보는 어머니가 된다. 정권도 국가권력기구이기에 앞서 민중생활을 책임진 호주가 된다. 이북민중은 력사의 체험을 통해 사회주의를 생활로, 생명으로 새겨안았다. 민중이 나라와 정치의 주인, 경제의 주역으로 되고 문학과 예술의 창조자인 동시에 향유자로 되고있는 그 좋은 세상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고 여기는 이북민중이다. 한 신문이 북에서는 〈인민대중속으로 파고드는 정치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다.〉고 한것은 조금도 과장된 평이 아니다.》

평양을 방문하였던 남조선의 한 녀성인사는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기들의 땀과 노력을 다 바쳐가는 우리 녀성들의 모습에서 받은 감동을 자기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

《…참된 세상에서 조국의 미래와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강성국가건설의 령마루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이북녀성들의 모습, 찬란한 미래를 향해가는 그들의 아름다움을 어찌 천만송이 꽃에 비기랴. 태양의 따뜻한 사랑이 있어 평범한 로동자, 농민의 딸들이 〈세계마라손녀왕〉, 〈세계녀자유술계의 새별〉로 이름떨치고 교수, 박사, 인민과학자로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것이 아니겠는가.》

이북바로알기회 회원 김진수는 《이북에서는 령도자와 민중이 사랑과 믿음으로 일심일체화되여있다. 이 국력으로 하여 이북은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위협과 공갈속에서도 자기가 선택한 주체의 사회주의길로 변함없이 나아가고있다. 령도자의 사랑과 민중의 충정이 결합되여 이루어진 견고한 결정체, 이북의 위력을 깨뜨릴 힘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확언하였다.

잡지 《민》, 《정세동향》을 비롯한 남조선의 출판보도물들도 《이북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수성은 령도자와 인민이 하나라는 사실이다.》, 《북녘에는 전세계를 감동시키는 선군정치가 있고 핵무기보다 강한 일심단결이 있다. 하여 북녘하늘은 영원히 푸르고 높을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교수는 평양에서 진행된 군중시위의 장엄한 모습을 록화물로 보면서 흥분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위인의 위업은 위인에 의해서만 확고히 계승된다고 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선군혁명위업은 김정은최고사령관에 의해 훌륭히 계승되고있다. 세계는 그분의 위인적풍모를 목격하며 커다란 충격을 받고있다. 진정 김정은최고사령관은 저 하늘에서 지구우에 내려오신 또 한분의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세계정치무대에는 김일성시대, 김정일시대에 이어 김정은시대가 장엄히 펼쳐지고있다. 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민족의 존엄과 영광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누리에 빛날것이다.》

우리 천만군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며 이 땅우에 부강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울것이다.

본사기자 김현철

사상의 힘으로 전진하는 이북

남조선 각계가 격찬

력사가 알지 못하는 사상의 힘으로 백승의 기상을 떨치며 전진해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찬 모습은 남녘겨레의 무한한 동경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기업가 리성호는 이북은 선군사상을 구현한 백절불굴의 정신력으로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영웅적진군을 다그치고있다, 자기힘으로 곤난도 맞받아 돌고나가는 투쟁정신은 세상을 놀래우는 비약을 일으키고있다고 말하였다.

평론가 김성철은 이북에서는 락관으로 충만된 혁명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있다고 격찬하였다.

《통일뉴스》, 《헤랄드경제》를 비롯한 언론들은 북이 새로운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있는것은 자력갱생의 혁명방식과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투쟁기풍으로 강성국가건설목표를 기어이 달성하려는 뚜렷한 사상적의지가 있기때문이라고 평하였다.

한 정치평론가는 글에서 이렇게 썼다.

북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사상과 정치의 대국으로 존엄높다. 령도자와 군민이 하나의 사상과 뜻으로 혼연일체를 이루고 그 위력으로 력사를 견인해온 이북이다. 사상과 정치의 힘이 발산하는 거대한 위력은 경제력이나 군력에도 비길수 없을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나 다 만들어내는 자력의 도술도, 아무때나 단호한 결심을 내리는 특유의 배심도, 국민모두가 신념의 강자, 창조의 명수로 된 초인간적기상도 사상이 위대해서이다.

그 사상의 위력으로 인공위성도 올리고있는것이다.

자주연구학회 회원 조성일은 이북이 자기힘을 믿고 번영할 래일을 위해 간고분투해올수 있은것은 민중모두를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키우신 김정일장군님의 세련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한 언론인은 《김정일총비서의 정치철학과 령도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 사상을 사회주의건설의 생명선으로, 사상론을 조선로동당의 정치철학으로 선언하심으로써 세상에는 사상의 대, 정치의 대가 굳건한 위대한 민중이 태여났고 이북은 어떠한 압력과 위협에도 두려움없이 힘차게 전진하는 사상의 강국, 정치의 강국으로 되였다.

김정일총비서의 생활신조, 정치신앙은 바로 김일성주석의 좌우명인 이민위천이였으며 사람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어 그들의 사상을 불러일으키고 창의력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새 사회건설을 하는것이 김정일정치방식이였다.

울산의 한 로조원은 근로민중의 무궁무진한 애국열의와 창조력을 불러일으키신 장군님의 령도가 있었기에 이북은 경제강국을 향해 보무당당히 나아갈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되였다고 토로하였으며 통일애국동지회 회원 김국훈은 령장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민의 일심단결, 이것이 무적의 힘을 낳은 위력한 원천이라고 피력하였다.

사상의 힘으로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의 칭송이 날로 높아가고있다.

언론인들과 대학교수들은 김정은제1위원장께서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갈데 대해 밝히심으로써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사상적기초로 하여 선군정치를 이어가실 립장을 천명하시였다고 밝혔다.

한 인터네트홈페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이전 쏘련의 붕괴이후에도 사회주의를 고수하며 미국과 당당히 대결하신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정치리념은 김정은최고령도자에 의해 그대로 계승되고있다.

앞으로도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정치가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리념, 방법론에 기초하여 펼쳐지게 될것이라는것이 내외평론가들의 일치한 견해이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은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미륙군참모총장 오디어노가 조선반도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큰 우려는 오판에 따른 전쟁발발가능성》이라고 아부재기를 쳤다. 그는 미국이 전쟁발발을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한다는 소리도 늘어놓았다.

오디어노에게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하는가고 묻지 않을수 없다. 미호전세력이 조선반도정세완화에 관심이 있는듯이 아무리 너스레를 떨어도 긴장격화장본인으로서의 저들의 침략적정체를 가리울수 없다.

지금 조선반도는 자그마한 불씨라도 튕기면 순간에 폭발할 화약통과 같은 상태에 있다. 조선반도에서 정세가 주기적으로 격화되고 전쟁발발위험성이 높아지고있는 기본책임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침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려놓으면서 새 전쟁도발의 구실을 마련해보려고 광분하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에게 있다.

지금 남조선전역에서 광란적으로 감행되고있는 합동군사연습만 보자. 미국은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한다는것을 발표하면서 《방어》요, 《규모축소》요 하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그것은 저들의 음흉한 침략적기도를 가리워보려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것이였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감행하고있는 이번 합동군사연습에 핵추진잠수함 《콜럼부스》호와 제7함대 기함 《블루릿지》호를 투입한데 이어 이지스유도미싸일구축함 《커티스 윌버》호, 이지스구축함 《라쎈》호, 미싸일순양함 《레이크 에리》호, 이지스구축함 《하워드》호를 동시에 끌어들이였다. 《규모축소》를 운운하면서 이처럼 방대한 무력을 끌어들이는것자체가 우리에 대한 도발이 아니고 무엇인가.

합동군사연습내용 또한 《방어》와 전혀 인연이 없는 공격적이며 침략인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최근 미국방성은 3월말부터 10일간에 걸쳐 경상북도 포항일대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련합상륙훈련을 벌린다는것을 발표하였다. 《쌍룡》이라고 불러우는 이 연습에 미국측에서는 7만 5000명의 해병대와 2 000명의 해군무력이 참가하며 12척의 미국, 남조선상륙정, 수직리착륙수송기들이 투입된다고 한다. 미국방성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올해에 진행되는 《쌍룡》연습이 무장장비와 작전령역을 놓고볼 때 지난 시기의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떠들었다.

상륙은 곧 공격이다. 미국이 《방어》를 위해서라면 본토에 있는 침략무력을 포함한 방대한 무력을 투입하여 상륙연습을 벌릴 필요가 없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미국이 정세변화에는 관계없이 한해도 번지지 않고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끈질기게 벌리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미국은 끊임없는 합동군사연습을 통하여 본토와 해외주둔 륙해공군 및 해병대무력을 조선반도에 신속히 전개하여 남조선과 함께 우리에 대한 립체적인 공격을 들이대기 위한 작전능력을 숙달, 완성하여왔다. 미국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에서 남조선당국과 함께 꾸며낸 위험천만한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과 《맞춤형억제전략》을 적용하면서 그 실효성을 검증하고있다. 이것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우리 공화국을 침공하기 위한 명백한 공격연습이라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기도가 뚜렷한 이런 대규모의 침략전쟁연습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도발행위로 된다는것은 누구도 부정할수 없다.

더우기 합동군사연습때마다 전쟁열에 들뜬 호전광들은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른다고 누구를 무력화시킬수 있다느니 뭐니 하는 소리들을 함부로 내뱉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미치광이들의 사소한 도발도 전면전쟁으로 쉽사리 번져질수 있다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현실은 바로 이렇다.

사실 지금까지 조선반도에서 정세가 전쟁접경에로 치달은적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그것이 전쟁으로 번져지지 않은것은 우리의 인내력의 결과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선반도의 평화수호를 위해 자제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할것이지만 도발자들의 침략행위는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다. 전쟁광신자들은 우리의 자제력과 인내력을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지난 세기 중엽 한차례의 전쟁을 도발하면서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단숨에 먹을수 있으리라고 오판하였다. 미국은 자기 땅우에는 영원히 적국의 포탄 한발도 떨어질수 없을것이라고 오판하는 헛된 망상에서 이제는 깨여날 때가 되였다.

우리는 이미 다종화된 우리 핵타격수단의 주되는 과녁이 미국이라는것을 밝혔다. 미국의 끈질긴 핵위협공갈에 종지부를 찍는것이 우리의 핵보유의 유일무이한 목적이다.

만일 미국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끝내 전쟁도발의 길로 나간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의 그 어떤 도발책동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것이다.

리현도

극악한 호전광, 침략자들에게 준엄한 철추를!

침략자들을 정의의 총대로 죽탕쳐놓겠다

항상 보면 뒤가 켕기는자들은 남을 걸고든다. 미국놈들이 바로 그렇다. 얼마전에는 미국무성의 사복쟁이들이 우리에 대한 험담질을 일삼더니 최근에는 군복입은 깡패들까지 그 본을 따고있다. 미북부군사령부 및 북아메리카항공우주방위사령부 사령관, 미태평양함대 사령관같은자들이 줄줄이 나서서 그 누구의 《미싸일위협》이 어쩌고저쩌고 하며 저들의 미싸일방위체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력설했다는데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미친개와 승냥이처럼 남을 물어메치는데 이골이 나고 주둥이가 온통 피로 게발린 미제양키들만이 그런 궤변을 서슴없이 내뱉을수 있다.

미국이 제창하는 미싸일방위체계라는것이 군사적우위로 힘의 균형을 파괴하여 다른 나라들을 손쉽게 침략하기 위한 공격체계라는것은 이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그런데 아직도 우리를 걸고들며 《위협》이니 뭐니 하는 얼빠진 수작을 늘어놓는가.

미국이 아무리 우리를 코에 걸고 북침전쟁준비를 완성하기 위해 모지름을 써도 소용이 없다. 미제호전광들이 숱한 돈을 탕진하며 미싸일방위체계를 개선한다 어쩐다 하며 소란을 피워도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적의 힘을 당해낼수 없다. 미제가 우리를 해치려고 발광할수록 원쑤들의 침략적도전을 선군의 총대로 무자비하게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할 우리 일당백용사들의 투지는 천백배로 억세여지고있다. 그러니 덤벼들테면 덤벼들라.

미제호전광들이 아직 정신이 덜 든게 분명하다. 미국은 우리 군대가 무엇때문에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는 멸적의 구호를 들고 복수의 시각만을 고대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미제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못되게 놀아댄다면 아예 명줄이 영영 끊어져 무덤속에 처박히게 될것이다.

조선인민군 군관 김은하

함부로 날뛰지 말라

얼마전 미국방성이 4개년국방전략검토보고서라는데서 우리 공화국을 《직접적이고 점증하는 위협요인》으로 걸고들었는데 정말 쓴웃음이 나간다. 우리가 그렇게 무서우면 조선반도문제에서 아예 손을 떼고 우리 인민에게 못된짓을 다시는 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는가.

죄를 지은 놈은 항상 불안감에 잠겨있기마련이다.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며 조선민족에게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을 저지른 미국은 우리 공화국이 자위적핵억제력을 강화하는데 겁을 먹고 불안감에 싸여 매일같이 《북위협》타령을 늘어놓고있다.

하지만 그것이 통할수 있겠는가. 썩은 장작이 연기가 많이 난다더니 우리 조국의 절반땅을 가로타고앉아 시시각각으로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미제가 아무리 《북위협》나발을 줴쳐도 그것을 곧이들을 사람은 없다. 파렴치해도 미제와 같이 파렴치한 날강도무리는 아마 없을것이다.

요즘 미국놈들이 엄지개가 짖어대면 강아지도 짖어댄다는 식으로 저저마다 우리를 마구 헐뜯으며 분별없이 날뛰고있는데 그렇게 혀바닥을 아무렇게나 놀려대다가는 졸경을 치르게 될것이다.

우리 돌격대원들은 지금 미제에 대한 치솟는 증오심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우리를 해치려고 발광하는 미제원쑤놈들을 모조리 과수밭거름더미에 처넣고싶은 심정이다.

우리는 미국놈들이 밸통이 뒤집혀 나자빠지게 과수농장건설을 더 본때있게 다그칠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머지않아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청춘과원에 사과가 주렁질때 그것은 그대로 미제승냥이들을 박살내는 수류탄이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618건설돌격대 평양시려단
강동군대대 정치지도원
안흥학

《위협》타령에 이젠 입아프지 않은가

내눈에는 미국이라는것이 시비군, 독설가들이 세균처럼 번식하는 오물통같이 보인다. 미군부우두머리들이 저저마다 나서서 우리를 걸고드는 속에 며칠전에는 또 미합동참모본부 의장이라는자가 우리 나라를 저들의 《안보에 주되는 위협》을 가하는 나라로 제멋대로 모독하면서 더러운 침방울을 튕기였다고 한다. 악취가 물씬 풍기는 그자의 더러운 입에 영영 자물쇠를 채워버려도 직성이 풀릴것 같지 않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보고 《위협》이라고 떠들어대는가. 이 땅에서 전쟁을 일으킨 침략의 원흉, 세기를 이어오며 우리 민족에게 핵위협을 들씌워온 범죄자들이 그 무슨 《위협》나발을 불어댈 체면이 있는가.

돼지는 자기 몸이 온통 구정물투성이여도 창피를 모르고 꿀꿀거리는데 미국놈들이 노는 꼴이 그와 다를게 무엇인가.

우리 인민에게 대대손손 해만 끼치며 악한짓을 일삼는 미국놈들을 절대로 그냥 둘수 없다. 쏘는 이발은 제때에 뽑아버려야 후환이 없다.

우리가 평화로운 환경에서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도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고 피를 물고 날뛰는 원쑤 미제를 단호히 징벌해야 한다.

인간과 야수는 한하늘아래에서 절대로 같이 살수 없다.

미국이라는 악의 제국이 없는 세계가 보고싶다. 미국이 지구상에서 하루빨리 없어져야 인류가 침략과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편히 살아갈수 있다.

보통강구역인민병원
구강분원 의사 천리향

규탄배격당하는 《인권재판관》의 가련한 몰골

얼마전 미국이 또다시 그 누가 인정도 하지 않는 《세계인권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여 세계적인 저주와 규탄의 대상이 되고있다.

해마다 그 누가 시키지도 않는 《인권재판관》행세를 하며 다른 나라들을 인권의 저울대우에 올려놓고 저울질하는 꼴을 보면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다. 가관은 제코도 못 씻는 미국이 그래도 명분을 세운답시고 《미국만큼 인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나라는 없다.》는 가소로운 소리를 하고있는것이다.

사실 인권문제를 론하자면 세계최대의 인권불모지로 악명을 떨치고있는 미국의 인권문제부터 따져야 한다. 그런데 미국의 자세는 어떠한가. 저들의 인권허물은 당반우에 올려놓고 마치도 《인권모범국》인것처럼 놀아대고있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세계인권보고서》를 전면배격하면서 뭇매질을 가하고있다.

에짚트외무성은 중뿔나게 자기 나라의 인권에 대해 시비하는 미국의 처사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알제리에서는 《인권문제》로 자기 나라를 걸고든 미국의 이번 《보고서》를 두고 인권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평가하며 그 부족점에 대해서도 언급할수 있는 자격은 자국에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론거를 반박하였다.

에티오피아정부도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에티오피아정부는 미국이 발표한 2013년 에티오피아에 대한 인권상황《보고서》는 무근거한 주장을 되풀이한 년례적인것으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것이라고 비난해나섰다. 그러면서 《보고서》가 믿을만 한 출처와 신고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작성되였다고 하지만 그들은 다 자기 나라 정부를 반대하는 국내외의 극단적인 야당분자들이라고 까밝혔다. 이들은 다 합법적인 에티오피아정부를 전복하려는 정치적목적을 추구하는 극소수의 잔여분자들이라고 강조하였다. 에티오피아정부는 미국의 이번 처사를 두고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다시금 재고려해보게 되며 이때까지 쌍무관계를 요란스레 떠들던 미국의 말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것인지 의심이 간다고 반박하였다.

미국의 《인권재판관》행세가 주권국가에 대한 부당한 내정간섭행위라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민족의 운명개척을 위한 환경과 조건이 나라마다 다른 조건에서 인권기준은 각이하다. 해당 나라가 어떤 정치방식을 택하고 어떤 방법으로 사회적발전을 이룩하는가 하는것도 전적으로 그 나라의 자주적권리에 속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그 누구도 거기에 간섭하여나서거나 지시하고 호령할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코를 들이밀고 이러쿵저러쿵 제나름대로 평가하며 쓸데없는 비난을 하고있어 모두매를 맞고있다.

중국은 미국에 대응한 《2013년 미국의 인권기록》을 발표하여 세계에서 가장 야만적인 인권침해국가, 지구상에서 인권침해로 비난받아야 할 첫째 대상이 미국이라고 규탄하면서 미국의 온갖 인권유린만행을 낱낱이 발가놓았다.

에꽈도르외무상은 자기 나라의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비난을 배격하고 미국은 비법체포와 비밀감옥들에서의 고문행위, 비법적인 반꾸바봉쇄 등 반인륜적범죄들을 저지르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이란은 미국의 《세계인권보고서》가 모략선전의 일환이며 미국이 국내외에서 감행하고있는 모든 인권침해행위들은 응당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취급해야 할 시급한 문제이기때문에 인권피고석에는 응당히 미당국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세계인권보고서》발표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규탄배격하고있는것은 천만번 응당하다.

저들의 인권범죄는 아예 모르쇠를 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인권에 대해 시야비야하는것은 미국의 고질적인 악습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문제를 가지고있는 나라이다. 부익부, 빈익빈의 량극분화가 심화되여 수많은 빈곤자, 실업자들이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잃고 거리를 헤매이고 살인, 강도를 비롯한 폭력범죄가 란무하여 주민들이 어느 순간에 목숨을 잃을지 몰라 공포에 떠는 무시무시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이런 미국이 그 누가 인정하지도 바라지도 않는 《인권재판관》행세를 하는것은 음흉한 속심이 있기때문이다.

분렬하여 통치하는것은 제국주의의 상투적수법이다. 미국이 다른 민족을 지배하고 억압함에 있어서 제일 두려워하는것이 단합된 힘이다. 때문에 미국은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될수록 분렬시켜 민족적단합을 파괴함으로써 그들의 힘을 최대한 약화시키고 저들의 침략적, 지배주의적목적을 손쉽게 이루어보려고 하고있다.

미국은 여러 민족과 인종, 종족들로 형성되여있거나 여러 분파세력들이 존재하고있는 나라와 지역들에 불화의 씨를 뿌려 서로 불신하고 반목질시하게 하는 한편 그 무슨 《민주주의》와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민족적 및 정치적대립과 분렬을 꾀하거나 부채질하고있다.

한마디로 《인권문제》를 계속 여론화하여 해당 나라의 영상을 깎아내리고 간섭의 구실을 얻어보자는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오산하고있다. 미국의 《인권》소동의 내막을 간파하지 못할 사람은 없으며 그것을 인정하고 허용할 나라도 없다.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략탈하는데서 극도의 오만성에 사로잡혀 안하무인격으로 놀아대는 미국의 처사를 두고 국제사회계가 침을 뱉고있다.

미국이 인권모략소동으로 그 무엇인가를 얻어볼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것이다.

남을 침략하기 위한 별의별 갖은 모략과 책동을 하면 할수록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를 미국자신이 뒤집어쓰게 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라명성

로씨야 미국의 제재책동을 병적증상으로 락인

로씨야련방평의회 의장 왈렌찌나 마뜨비옌꼬가 17일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를 단죄하였다.

그는 미국이 국가적직무를 수행하는 고위인물들과 관리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한것은 랭전시기에도 그 전례가 없는것이라고 비평하였다.

이것을 정치적공갈로 락인하고 그는 자기에 대한 제재는 자신의 원칙적인 립장에 압력을 가하고 그것을 변경시키려는 시도로 된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서방의 지정학적리익이 아니라 로씨야의 국가적리익을 수호해왔으며 앞으로도 그것을 지켜나갈것이다. 그 어떤 위협도 우리를 놀래우지 못한다.》고 언명하였다.

로씨야외무성 부상 쎄르게이 랍꼬브가 17일 한 발언에서 미국의 제재를 병적증상으로 락인하였다.

그는 로씨야를 대표하는 공식인물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결정에 격분을 표시하면서 이것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병적증상의 반영이라고 신랄히 단죄하였다.

미국의 제재는 일방적이고 불균형적인것으로서 남을 완전히 무시하는 자기의 립장을 모두에게 강요하려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그는 까밝혔다.

말레이시아에서 학교교육

미국의 부당한 기소행위 비난

인디아정부가 최근 자기 나라 외교관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기소행위를 비난하였다.

미국이 뉴욕주재 인디아외교관에 대해 그 무슨 사증위조에 걸어 또다시 기소한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이를 무익한 조치로 락인하였다.

인디아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행위로 하여 두 나라사이의 관계에 예상치 못한 후과가 초래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41046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